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주 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정 윤 경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공동연구자 | 이 진 효 이화여자대학교

오 유 진 중앙대학교

■ 연구책임자

조 주 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정 윤 경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공동연구자

이 진 효 (이화여자대학교)

오 유 진 (중앙대학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무용영재성 개념 고찰	7
1. 무용영재성 개념	7
2.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	13
3.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기준	18
4.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인 탐색	38
5. 종합 및 시사점	48
III. 상위수준 무용영재 인식 및 요구도 분석	50
1. 조사개요	50
2. 조사결과	53
IV.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과정 탐색	78
1. 연구방법	78
2. 연구결과	82
3. 종합 및 시사점	106
V. 결론 및 제언	108
1. 결론	108
2. 제언	112
참고문헌	114

표 목 차

〈표 I -1〉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상세 현황	5
〈표 II -1〉 선행연구의 무용영재에 대한 정의	9
〈표 II -2〉 선행연구별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	17
〈표 II -3〉 국내 예술영재교육원 무용영재 선발기준	18
〈표 II -4〉 국내 영재학급 무용영재 선발기준	29
〈표 II -5〉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29
〈표 II -6〉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상세 현황	31
〈표 II -7〉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연도별 성과	31
〈표 II -8〉 국외 무용영재기관 선발기준	37
〈표 II -9〉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인 탐색 FGI 참여 전문가	39
〈표 III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50
〈표 III -2〉 조사도구 영역별 문항	52
〈표 III -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3
〈표 III -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4
〈표 III -5〉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5
〈표 III -6〉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6
〈표 III -7〉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7
〈표 III -8〉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인식 분석 결과	58
〈표 III -9〉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3
〈표 III -10〉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4
〈표 III -11〉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5
〈표 III -12〉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6
〈표 III -1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7
〈표 III -1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68
〈표 IV -1〉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과정 심층인터뷰 대상자	79
〈표 IV -2〉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중심의미	106

그림 목차

[그림 I -1]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내용 및 방법	4
[그림 II -1]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오레지나, 2005)	14
[그림 II -2] 발레영재성 구성 요인의 계층구조도(조주현, 2007)	15
[그림 II -3]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이진효 외, 2011)	16
[그림 II -4]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황명자, 2012)	16
[그림 II -5]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조주현(2007) 연구를 재구성)	42
[그림 III -1]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인식 분석 결과 종합	59
[그림 III -2]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요구도 분석 결과 종합	69
[그림 III -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0
[그림 III -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1
[그림 III -5]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2
[그림 III -6]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3
[그림 III -7]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4
[그림 III -8]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7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한 지 20여 년이 되었다. 예술영재교육은 그보다 10여년 먼저인 1991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개교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예술교육과 예술영재교육을 알리고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예술영재 출신의 학생들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저명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영재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상당수의 예술영재교육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국내에 영재교육이 공적 투입된 이후 지금까지 예술영재성, 예술영재 판별과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과 같은 기초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나아가 연구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기관 및 현장의 요구에 따라 판별도구 타당화 연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같은 특수한 예술영재에 관한 연구 등으로 관련 연구 영역이 확장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시키고 예술영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원영실, 2013).

우리나라는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나뉘어 영재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정부 주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재학급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으로(「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동법 제7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재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에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설치·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고, 내용에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래 단위학교 예술영재학급이 기초과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영재교육원은 심화·사사 과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김혜정, 한기순, 2013). 예술영재학교는 그 중에서도 상위수준의 아이들을 선발하여 국가 차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예술영재학교에서만 효과적인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강병직 외, 2007; 김춘미 외, 2006; 양건열, 이지연, 2012; 이경진, 2011, 2013, 2014; 원영실, 2011, 2013; 조형정 외, 2010)에 의하면 예술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자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다. 특히 예술영재학급이나 예술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예술영재교육은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화, 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부족,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무용분야의 유일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 예술영재교육원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비정규 교육 과정으로 주말학교나 풀 아웃 프로그램(Pull-out program)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주말학교나 풀 아웃 프로그램은 교육시간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영재교육 공교육화를 도모하기 전 국내의 예술영재교육은 예술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예술 중·고등학교는 국내에서 예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근대교육의 도입 후 예술가 양성에 중요한 역할(정옥희, 2020)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예술계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 일반계열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예술영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예술중·고등학교가 예술영재학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예술영재들에게는 예술교육이 아닌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예술영재의 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영재들에게 필요한, 즉 기능 중심의 실기 교육 이상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영재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무용영재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술영재학교 설립은 이제 더 이상 구상 수준이 아닌 실체를 만들어야 가는 과정에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상위수준 예술 및 무용영재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궁금증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예술영재학교 설립이 논의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예술영재는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숙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예술영재 기초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쉽게도 현장과 연구가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진행된 바 없다. 특히 국내 예술영재교육의 산실로 꼽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지대한 관심에 비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각이 아닌 높은 수준의 무용영재성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받은 성취예술가들과 오랜 시간 이들을 교육해온 이들이 생각하는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은 무엇인가

둘째,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인식 및 요구도는 어떠한가

셋째,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기간

2022년 5월 ~ 2023년 1월(8월)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용영재성 개념 고찰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탐색
•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기준 탐색 • 전문가 FGI를 통한 요인 탐색	• 상위수준 무용영재 인식 빈도분석 •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구도(필요 수준 차이) Borich, t-검정 분석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강사진 및 출신 예술가 심층인터뷰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 및 구성 요인 1차 수립 • 전문가 FGI를 통한 2차 수립	•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요인 설문지화 •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순위 및 가중치 도출 • 일반영재와 비교했을 때 상위수준 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도출	• 유목적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두 배수 인원(30명) 리스트업 •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 15인 선발(교육자 5인, 예술가 10인) • 의학분야 추가 심층인터뷰 진행

[그림 1-1]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내용 및 방법

- 무용영재성 개념고찰을 통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탐색
 - 무용영재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 기준 고찰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와 구성 요인 1차 수립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2차 수립
-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인식 및 요구도 분석
 - FGI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요인들을 설문지화

- (인식분석)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순위 및 가중치 도출
빈도분석 및 평균±표준편차
- (요구도분석) 일반 영재와 비교했을 때 상위수준 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필요수준 차이 분석법, Borich 요구도 조사, t-검정 분석
-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탐색
 - FGI 및 인식/요구도 분석을 통해 두드러진 특성을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함
 - 교육전문가 5인, 무용영재 출신 성취 예술가 10인의 심층인터뷰 실시
 -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따라 두 배수(30명)의 인원을 리스트업
 -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에 따라 무용과 교수 2인이 최종 15인을 선발함
 - (추가 심층인터뷰) 엘리트 체육 정형외과 전문의 2인, 소아과 전문의 1인, 소아
전문 한의사 1인, 대학병원 수료 무용의학 전문가 1인
 - 무용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이야기되는 외형 조건의 유전적 성질, 성장기 체중변
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함

다. 연구 범위

-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범위
 - 무용영재교육 대상자 22명(2021학년도 기준) 중 34명을 대상으로 함

〈표 I -1〉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상세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부설					교육청	영재 학급	합계
	무용분야			전통예술				
	서울	경남	세종	서울	경남			
학생 수	34	7	9	9	2	138	29	228

본 연구에서는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재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위수준 예술영재 및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관련 선행연구나 근거가 될 만한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경험지식과 현상, 맥락만으로 연구 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으로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무용분야 전체 기관의 구체적 실적이나 통계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되기도 전부터인 30년 이상 긴 역사가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수료생들이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영국 로얄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워싱턴발레단, 보스턴발레단, 한국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무용단의 예술가들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스코 산하 국제무용협회(CID-Unesco)의 인증 및 국제무용연맹(WDA, World Dance Alliance)의 연맹콩쿠르,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무용콩쿠르, 대학 및 예술중고교 콩쿠르와 같은 유수의 콩쿠르에서 연 평균 95.2회의 수상을 하는 우수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II. 무용영재성 개념 고찰

1. 무용영재성 개념

가. 무용영재성

국내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면 영재는 ‘특정 교과 또는 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는 자(교육부, 2018; 정윤경, 이승진, 남수영, 2021; 정윤경, 이진호, 오유진, 2022)’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이며, 제5조에서는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리고 기타 특별한 재능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영재학회(2017)는 영재를 ‘특정 분야에서 환경이나 경험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해 고도의 재능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용영재 연구는 2000년에 이르러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무용영재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잠재된 영재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용영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교육 목표와 방법 등 교육 과정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향후 영재교육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어 무용영재에 대한 개념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용영재 연구를 수행한 초기에 무용영재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발레 영재를 판별하는 기초연구(김춘미, 조은숙, 윤희원, 2003)에서 발레 영재를 ‘발레 예술에 적합한 신체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무용영재성 요인 탐색에 대한 선행연구(오레지나 외, 2005)에서는 무용영재성에 대해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무용영재성의 세부 하위요인으

로 무용 체격, 무용 체력, 무용 동작 능력, 무용 성향을 제시하였다.

예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에서는 무용영재가 지녀야 하는 무용 능력의 개념을 움직임 수행능력, 신체지능, 표현 및 창작능력, 태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조주현(2007)은 발레 영재성을 신체, 예술적 감성, 발레지능, 심리, 환경의 다차원적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교육학 관점에서 환경적 특성을 주요 타자, 교육 요인으로 구체화하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0)이 수행한 무용영재 평가범주 개발 연구에서는 무용영재를 신체적 조건, 능력, 창의력, 과제집착성의 영재성 구성요인이 모두 탁월한 수준이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상의 무용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에서는 무용영재를 현재 춤을 잘 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춤을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뛰어난 잠재적인 무용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7)에서 수행한 무용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소명의식을 지닌 자로서, 무용영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으며, 타 분야와의 소통 및 융합을 통해 무용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의 특정한 무용 분야에 대한 영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무용 분야의 잠재된 능력까지 포함하여 모든 전공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뛰어난 무용능력을 지닌 사람을 무용영재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후속 연구인 무용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 연구(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8)에서 무용영재를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잠재성과 태도를 지닌 자로서, 잠재된 무용능력(신체능력, 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력, 무용성향 등)이 뛰어나거나 무용영재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타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무용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정의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무용능력(신체능력, 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력, 무용성향 등)이 뛰어난 사람으로 범위를 정립하였다.

〈표 II-1〉 선행연구의 무용영재에 대한 정의

연구자	무용영재 정의
김준미, 조은숙, 윤희원(2003)	발레 영재는 발레 예술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오레지나 외(2005)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한국예술영재교육 연구원(2010)	신체적 조건, 능력, 창의력, 과제집착성의 영재성 구성요인이 모두 탁월한 수준이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상의 무용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진호, 이진희, 박현정(2011)	현재 춤을 잘 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춤을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뛰어난 잠재적인 무용재능을 가진 사람
한국예술영재교육 연구원(2017)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소명의식을 지닌 자로서, 무용영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신장시킬 수 있으며, 타 분야와의 소통 및 융합을 통해 무용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한국예술영재교육 연구원(2018)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잠재성과 태도를 지닌 자로서, 잠재된 무용능력(신체능력, 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력, 무용성향 등)이 뛰어나거나 무용영재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타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무용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재

나. 영재성

한편 영재에 대한 정의는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졌기 왔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학자들에 따라 변화해 왔다. 영재와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높은 지능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에 따라 영재성은 IQ테스트를 통해 판별되며, 미국의 Terman(1925)은 지능검사 상위 3% 이내의 사람을 영재로 정의하였고, 이 정의에 따르면 영재는 IQ 130 또는 140 이상인 사람들이었다. 현재까지도 학계에서는 일반영재 중에서 상위에 드는 상위수준 영재는 일반적으로 영재 중에서 매우 높은 지능지수를 보이는 영재를 의미(한국영재학회, 2017)하기도 한다.

그러나 IQ만으로 영재를 정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Guilford(1967)는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가 포함되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Renzulli(1978)는 영재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균 이상의 능력(above-average general and/or specific abilities), 높은 수준의 창의력(high level of creativity)과 과제집착력(high level of task commitment)을 포함시켰다(김언주, 2001; 김영춘, 2018; 윤수진, 2021). 또 Silverman(1989)은 상위수준 영재(highly gifted)를 ‘영재에 대한 여러 기준 이상의 탁월함을 보이는 아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탁월함’은 태도와 잠재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수준 영재는 앞서 설명한 지능이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Miraca, 2004; 이지수, 2019).

예컨대 학문 분야 외에도 예술,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면 영재로 구분된다. 이들을 각각 예술 상위수준 영재, 스포츠 상위수준 영재라 한다. 예술 상위수준 영재는 탁월한 예술성을 기반으로 예술적인 기술을 내면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이며(김춘일, 2004). 스포츠 영재는 일반 및 특수 능력이 평균 이상이고 운동과 스포츠 분야에서 과제몰입 능력, 흥미, 호기심이 높고 창의성이 뛰어나며, 장래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룰 것이 예상되는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홍식 외, 2007; 서용석, 2014).

Feldman(1993)은 상위수준 영재를 독특한 유형의 영재로서 음악·수학 등의 한 분야에서 높은 재능, 아주 높지 않고 적당히 높은 지능지수, 높은 수준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에너지 집중과 지속적 노력, 남다른 자신감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상위수준의 영재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생물학적·유전적 이점, 가족, 선생님, 수용적 사회, 특수한 재능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그리고 어린 초고도 영재를 최상의 상태로 충분히 계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Bloom, 1985; Feldman, 1986, 1991). 더 불어 다양한 상위수준 영재 사례에서 아동의 성취를 촉진하는 교수와 적절한 기회는 어린 영재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Bloom(1985)은 면담을 통하여 120명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조각가, 수영 선수, 피아니스트, 수학자, 과학자들의 과거 학교생활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활약하고 있는 분야와 관계없이 성장 과정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나 가족이 이들의 재능을 일찍 인정해주고 격려하였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Bloom(1985)은 장기간의 집중적인 격려, 영양 공급, 교육, 훈련과정 등의 환경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위수준 영재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김기명, 2011).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상위수준 영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지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상위수준 영재의 인지적 특성은 높은 독서능력,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력, 언어 및 지적 능력, 창의성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인지적 특성은 몰입, 과제집착력, 자율성, 높은 지적 호기심 등이 있는데 개인마다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분야와 그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지수(2019)의 연구에서는 상위수준 영재의 지적인 특성을 어휘력의 발달, 높은 학습·사고·문제해결능력으로 설명한다. 또한 공통적인 특성으로 빠른 정보 처리 속도, 뛰어난 기억력·집중력·지적 호기심, 높은 학문적 지식에 대한 욕구와 배움에 대한 열정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비인지적 특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서적 민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며, 수면에 대한 욕구가 낮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옳다고 확신하며, 지적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집중과 몰입이 뛰어나다고 설명하였다.

상위수준 영재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수준 영재는 선천적인 강력한 동기로 특정 영역에서 최고 수준으로 재능을 계발함으로써 고도로 숙련된 수행을 보인다(김범석 외, 2019). 상위수준 영재는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계발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고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 기간을 거쳐 매우 높은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더불어 고도영재성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계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 중 ‘뛰어난 일부’가 아닌 ‘특별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교육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용영재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용영재에 대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과학 분야에서 일반 영재보다 뛰어난 영재성을 가진 상위수준 영재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술영재 분야에서는 상위수준 영

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무용영재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영재성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어떤 교육에 의해 고도의 영재성을 신장시켜야 하는지를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용 분야의 상위수준 영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특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상위수준 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을 발굴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무용수로써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무용영재 교육 역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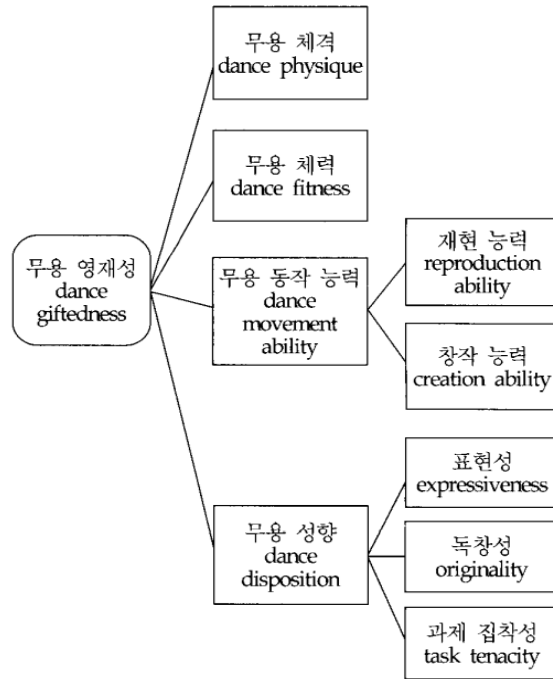
무용영재성과 그에 따른 구성 요인을 정의하는 것은 무용영재를 판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영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용영재성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구성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김춘미, 조은숙, 윤희원, 2003)에서는 발레 영재가 신체운동능력, 신체적 조건, 표현력, 청음능력의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신체운동능력은 유연성, 순발력, 뛰기, 돌기 동작에서의 탁월한 능력, 신체적 조건에서는 팔, 다리, 고관절의 유연성, 발등의 모양, 머리, 목, 허리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표현력은 테크닉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뛰어난 능력이 잠재되어야 하며, 동작의 리듬감을 느끼고 풍부한 감정 표현을 위해 청음 능력을 강조하였다.

무용영재성에 대한 선행연구(오레지나 외, 2005)에서는 무용영재성을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무용영재성이 무용 체격, 무용 체력, 무용 동작 능력, 무용 성향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하위요인 중에서 무용 동작 능력은 재현 능력, 창작 능력, 무용 성향은 표현성, 독창성, 과제 집착성의 세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술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을 개발한 한수연(2007)의 연구에서는 무용영재가 지녀야 하는 무용 능력의 개념을 네 개의 구성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움직임 수행능력은 신체 조정력(유연성, 순발력, 근력, 지구력)과 신체 협응력(균형감, 신체리듬감)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요인은 신체지능으로 동작 분석능력(공간지각능력, 시간인식능력, 움직임의 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과 움직임의 회상능력인 동작기억력으로 하위요인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표현 및 창작능력으로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 무용수와 무용수, 무용수와 물리적인 환경, 무용수와 음악 등을 사용하여 동작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 표현능력(음악성, 감수성, 즉흥성)과 동작결정 및 구성, 독창성(상상력, 창의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열정/자기동기, 끈기, 사회성, 리더십으로 구성되며 열정/자기동기는 춤에 대한 애정과 집요함, 끈기는 인내력, 성실성, 자기 절제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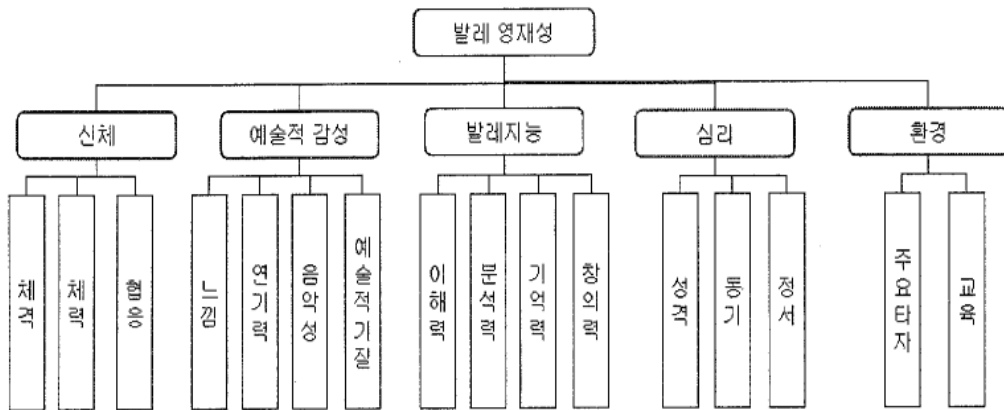
로 사회성은 동료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 리더십은 책임감과 도전의식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II -1]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오레지나, 2005)

조주현(2007)은 발레 영재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레영재성은 신체, 예술적 감성, 발레지능, 심리, 환경으로 범주화되는데 세부 구성요인으로 살펴보면 신체는 체격, 체력, 협응, 예술적 감성은 느낌, 연기력, 음악성, 무대 예술적 기질, 발레 지능은 이해력, 기억력, 창의력, 분석력, 심리는 동기, 성격, 정서로 구성되며 환경은 주요 타자와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발레영재성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예술적 감성이며, 다음으로 신체, 발레, 지능, 심리, 환경의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신체 요인에서는 협응, 체격, 체력, 예술적 감성은 음악성, 느낌, 예술적 기질, 연기력, 발레 지능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기억력,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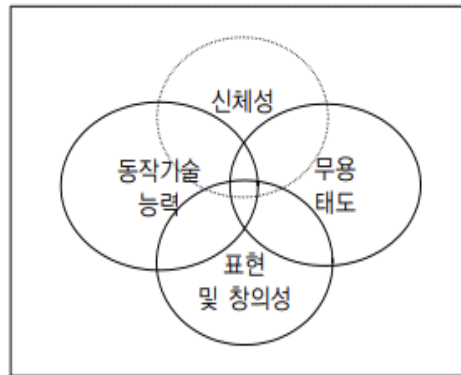
요인은 정서, 성격, 동기, 마지막 환경 요인은 교육, 주요 타자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발레영재성의 구성요인으로 교육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데 있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발레의 영재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하였다.



[그림 II-2] 발레영재성 구성 요인의 계층구조도(조주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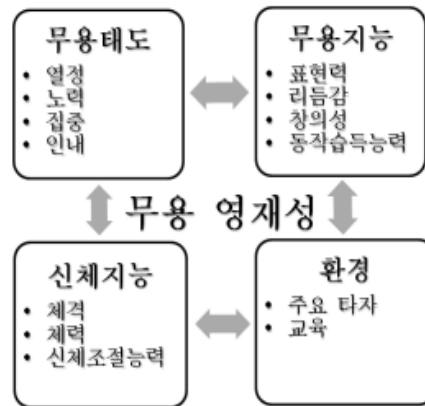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Renzulli(1978)가 제시한 일반 영재성의 구성 요인(평균이상의 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과 무용이 예술적 특성상 정신과 육체를 조화시킨 운동이라는 개념(Sandra, 1982)을 기반으로 신체적 조건을 포함하여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신체적 조건, 표현 및 창의성, 무용영재의 무용 태도, 동작수행능력으로 범주화하였다(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신체적 조건은 두상의 크기, 상지 및 하지의 길이, 몸의 비율, 골반 및 척주의 정렬, 턴 아웃 등을 기준으로 하며, 표현 및 창의성은 타고난 리듬 및 박자 감각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자신의 움직임을 외형적으로 표현해 내는 성질을 의미한다. 무용 태도는 무용성향으로 무용에 임하는 자세 및 심리적 성향으로 구체적인 세부 요인으로서는 끈기 및 인내력, 무용에 대한 열정, 몰입 및 집중력, 자신과 자신의 춤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 등이 있으며 마지막 동작수행능력은 동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신체를 조절하고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신체협응능력과 동작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정확하게 수행하는 동작인지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 -3]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이진호 외, 2011)

무용영재성의 요인 탐색 연구(황명자, 2012)에서는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은 무용태도, 신체지능, 무용지능,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림 II -4]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황명자, 2012)

무용태도는 신체적 표현을 하려는 열정, 내면의 세계를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려는 욕구, 그 무용학습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집중, 몰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체지능은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개인의 골격 구조, 근육의 모양, 외모를 포괄하는 체격,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등의 체력, 원하는 동작을 적절하게 표현

해내는 능력인 신체조절능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였다. 무용지능의 하위요인으로서 학습지능은 무용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억력,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창의지능은 새롭고 자유로운 표현을 구성해내는 지적 능력이며, 분석지능은 무용동작 전 과정의 순서나 방향을 비교, 분석, 선택하는 능력이나 심미표현의 통일, 균형, 조화, 비례, 변화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윤서진(2022)은 무용영재성을 신체기능 지능, 동작인지 지능, 심상표현 지능, 창의융합 지능, 내재적 동기로 범주화하였다. 세부적는 신체기능 지능을 체격, 체력, 운동감각, 조절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작인지 지능은 동작정확성, 테크닉수용력, 시퀀스 인지력, 과제집중력으로 범주화하였다. 심상표현 지능은 공감각적 표현력, 음악조화력, 감성적 연기력으로, 창의융합 지능은 안무독창성, 안무응용력, 문제해결력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 요인은 무용자결성, 무용유능감, 무용몰입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표 II-2〉 선행연구별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

구분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
김춘미 외(2003)	신체운동능력, 신체적 조건, 표현력, 청음능력
오레지나 외(2005)	무용 체격, 무용 체력, 무용 동작 능력, 무용 성향
조주현(2007)	신체, 예술적 감성, 발레지능, 심리, 환경
한국예술영재교육 연구원(2007)	움직임 수행능력, 신체지능, 표현 및 창작능력, 태도
이진호 외(2011)	신체적 조건, 표현 및 창의성, 무용 태도, 동작수행능력
황명자(2012)	무용태도, 신체지능, 무용지능, 그리고 환경 요인
윤서진(2022)	신체기능 지능, 동작인지 지능, 심상표현 지능, 창의융합 지능, 내재적 동기

3.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기준

국내·외 무용영재교육 기관은 모두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선발기준에 의해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있다. 무용영재 선발기준은 각 기관에서 설정한 무용영재의 특성을 대변한다. 제시된 요인을 기준으로 일반 무용영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동을 상위수준 무용영재로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위수준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잠재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가. 국내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

국내 무용영재교육 기관은 크게 예술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으로 구분된다. 그중 예술영재교육원으로는 2008년에 설립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관이 있으며 영재학급은 총 6개의 기관으로 나타난다.

〈표 II-3〉국내 예술영재교육원 무용영재 선발기준

교육 기관명	세부전공	선발기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발레	전공실기, 예술성 테스트
	전통무용 전통연희	전공실기, 신체 협응력, 창의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정확성, 유연성, 리듬감 응용능력,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향후 발전가능성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전공실기 창의적 표현능력
인천예술고등학교 중등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전주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외국무용	전공실기 인성,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

교육 기관명	세부전공	선발기준
전주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심층면담
대전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발레	전공실기, 인성평가, 적성평가
충북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신체구조와 체형 인성평가, 적성평가 지원동기, 목표 등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영재성검사 상황중심 관찰평가 전공능력, 표현 및 창작능력

1) 예술영재교육원

(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국내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먼저 설립된 최초의 국립 예술영재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기관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을 기반으로 잠재성 있는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양성하고, 예술영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예술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고 과제 탐색과 문제 해결의 능동성을 배양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 평가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교육 목표이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뛰어난 재능과 예술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잠재된 재능을 발현시키고, 예술을 통해 타인과의 공감 형성 능력이 배양된 창조·공감의 예술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확립되고, 통합·개방적 사고를 가진 미래 사회의 지도자적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인 범주에 따라 무용 분야는 미래에 국내·외 프로 무용 단체를 리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무용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통무용과 같은 전통예술분야는 전통무용과 현대의 창작무용 교육을 기반으로 향후 무용공연예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세부전공을 음악(기악, 성악, 작곡), 무용(발레), 전통예술(음악, 전통무용, 연희) 분야로 구분하며, 무용 분야의 선발 인원은 발레 전공 34

명, 전통예술의 전통무용은 연희 전공과 합쳐 7명으로 전공에 따라 고등학교 1~2학년 이하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모든 지원자는 공통적으로 교사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며, 무용의 발레 전공은 1차, 2차 전형 모두 실기 평가를 100%로 반영하는데 1차 시험은 전공실기로 시험 현장에서 기본동작(Barre, Center, Allegro, Pointwork)을 평가하며, 2차 시험으로는 평가 과제로 제시되는 복합 동작을 따라하는 예술성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전통예술 중 무용분야의 1차 전형은 5분 이내의 1개의 작품(자유선택)을 수행하는 전공실기 100%로 치러지며, 2차 전형은 전공실기 60%, 면접 10%, 예술적성 검사 결과가 30%로 반영되는데 전공실기는 1차 전형과 다른 5분 이내의 1개의 작품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이때 즉흥춤의 예술적성검사를 통해 신체협응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전통연희분야의 평가범위는 전통예술의 무용 전공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1차 전공실기로 5분 이내의 풍물, 탈춤, 무속, 남사당 중 한 가지를 수행하여 평가하며, 2차 시험에서는 전공실기로 1차와 다른 풍물, 탈춤, 남사당 중 한 가지를 수행하여 평가하고, 예술 적성검사에서는 신체협응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이하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예술적 감각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예술인재를 육성하며, 광주 지역 예술영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은 음악(기악, 성악, 국악), 미술(디자인, 순수조형), 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문예창작(운문, 산문) 분야에서 광주광역시 관내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가운데 예술적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이론 지도와 전공실기 지도,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분야별 마스터클래스 및 특별 강의 등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예술영재교육원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 분야의 무용영재를 선발하며, 무용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예술영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사관찰평가와 학교추천위원회

를 통해 최종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은 예술영재교육진흥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예술영재교육원이다. 기관의 교육목표는 창의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예술영재교육을 시행하여 잠재능력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한 맞춤형 예술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창의성 신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리더십, 인성을 함양하고 잠재된 예술성과 심미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술·인성·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의 선발 규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초등학교 4, 5학년 연령대로 무용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인정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 별로 8명씩 전체 16명을 선발한다. 예술영재교육원은 다단계 선발규정에 의해 선정하는데 무용영재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후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세부전공에 따라 당일 제시되는 기본동작을 따라하는 전공실기 평가(80%)와 창의적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영재성 검사 및 면접(20%)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라) 인천예술고등학교 중등예술영재교육원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중등예술영재교육원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예술 분야에 잠재적인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 21세기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과 풍부한 표현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간, 사물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심미적 인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며 남을 배려하는 자주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중등예술영재교육원은 인천시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선발은 10명, 사회통합대상자는 2명 이내로 선발한다.

선발 단계를 보면 1, 2단계에서는 자기추천 및 학교장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시교육청의 창의인재과로 전자문서를 접수한 후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3단계는 영재성 검사로 무용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2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평가된다. 무용영재학급의 세부전공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구분되는데 영재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각 세부전공 분야에서 시험 당일 기본동작을 제시하여 따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세부전공에 따라 규정된 실기의상을 준수해서 응시해야 한다.

(마) 전주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전주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은 전주시 교육청 관할 영재교육원으로 예술영재의 잠재된 예술적인 소질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예술영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육성하여 향후 새로운 예술을 창조함으로써 소속된 공동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참다운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전주예술중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의 무용영재 선발 자격 요건은 전라북도 지역의 초등학교 2~5학년에 재학 중이며, 해당 전공과 관련한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평가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영재 선발은 크게 실기 평가(50%)와 면접(50%)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실기 시험은 전주예술중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제시한 무용실기 기본동작을 따라하는 것으로, 면접은 전공 관련 소양(30%)과 인성 관련 소양(20%)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바) 전주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전주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음악, 미술, 무용)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적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영재교육원은 창의적 능력을 신장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

원을 조기에 발굴·육성함으로써 예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무용에 대한 관심이 깊고 능력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교사관찰 추천에 의한 학교추천위원회 추천 요건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전체 정원 내 10% 이내로 저소득층 자녀·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고 있다. 무용영재 선발 시험은 다단계 전형으로 1차 실기오디션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세부전공별 기본동작을 수행하여 전공실기 능력을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 2차 전형은 심층면접으로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2단계를 거쳐 본교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의해 선발되면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발된다.

(사) 대전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대전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할 영재교육원으로, 예술 분야에 잠재력과 재능을 발굴하여 개인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술영재가 갖고 있는 예술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고 예술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하 ‘대전 예술영재교육원’)은 대전광역시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시험 전형은 다단계 선발 방식으로 서류전형에서는 교사의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며, 1차 전형은 실기평가로 발레 응용 실기를 실시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한 후 평가기준안에 따라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로 성적을 산출해서 평가하며,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면접과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무용영재는 1차, 2차 전형 성적의 합이 높은 학생 순으로 대전 예술영재교육원의 예술영재교육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아) 충북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충북예술고등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이하 ‘충북 예술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

관내의 초·중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성취 욕구를 충족하고, 상상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예술영재교육원은 충북 지역 예술영재의 조기 발굴을 통한 잠재력 계발, 예술가로서의 인성 및 자질 함양, 수월성 교육을 통한 우수한 예술 영재육성, 예술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을 제고하고, 충북예술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충북 예술영재교육원은 무학년 1학급으로 전체 20명 정원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 분야의 무용영재를 선발하며, 사회통합 전형 영재교육대상자 10%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무용영재 선발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전형으로는 학교장 추천, 2단계는 영재성 검사와 전공실기 시험, 3단계는 접수한 서류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와 목표, 희망 등을 중심으로 무용영재로서의 전공 관련 적성 및 인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며, 4단계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다단계 전형이 진행된다. 최종선발은 학교장 추천을 받았으며 2·3차 전형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추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의 구분이 없이 선발한다.

(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은 충청남도 교육청 관할 영재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충남 지역의 유일한 초등 예술분야 영재교육원이다. 예술적 재능 이외에도 소통, 협업,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음악, 미술, 무용 분야에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미래 문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관의 교육 목표이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의 예술영재 선발 요강에 따르면 무용영재의 세부 전공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며 전체 15명을 선발한다. 선발 방식은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되는데 1차 전형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개발한 전국

공통 영재성검사를 통해 영재성을 평가하며,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전형인 상황중심 관찰평가를 진행한다. 상황중심 관찰평가는 전공에 대한 개인능력 평가와 표현 및 창작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선발 심의를 거쳐 2차 전형 점수만을 합산하여 고득점자가 최종적으로 선발된다.

2) 영재학급

(가) 계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계원예술고등학교는 예술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고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향후 예술가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장래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계원예술고등학교는 경기도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며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20명의 무용영재를 선발하여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 인원은 영재교육기관 개편 방향과 지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영재교육 수료 및 수료예정자, 소외계층 등)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전체 정원의 10%이내를 소외계층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이 규정이다.

영재 선발 절차는 1단계로 전공실기 시험과 2단계 면접 및 추천서와 제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단계 전공실기 시험은 전공별(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따라하기 시험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비소집 시 각 전공별로 기본동작으로 구성된 실기시험 과제를 제시하여 학교에서 규정한 의상을 준수하여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2단계 면접은 지망동기, 자신의 목표, 수상경력, 각오와 희망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천서 및 제출 서류 심사에는 영재학급 운영위원인 심의위원이 세부적인 합격자 배제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무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나)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안양예술고등학교는 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나고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을 조기

에 발굴하여 예술가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기초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탁월한 예술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영재학급을 설립하였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양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예술영재교육 대상자는 선수학습에 의한 관련 교과목 성적우수자가 아닌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은 현재 경기도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초 4~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분야에서 총 20명 정원을 선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시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영재학급 지원자는 경기도 교육청 내 모든 영재교육기관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시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된다.

무용영재 선발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전형으로 학교장 및 담임 추천(추천서 제출), 2차 전형으로는 전공 실기 시험, 3차 전형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반영비율은 전공실기 성적 90%와 면접 10%로 실기시험은 세부전공별 시험 당일에 동작을 제시하여 실기동작을 실시하며, 면접은 전공과 관련된 적성과 인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2차 전형과 3차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시험 결과 동점자는 실기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그 다음으로는 저연령 순으로 선발한다.

(다) 고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고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은 예술 분야의 잠재력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상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양예술고등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의 영재학급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가운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인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본원의 선발 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무용영재는 한국무용, 발레 전공자 전체 20명 정원을 기준으로 모집하는데 지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실제 선발 인원은 적을 수 있으며, 정원 내 1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녀로 선발한다. 무용영재를 선발하는 절차는 1차 서류 검토, 2차 실기평가, 3차 심층면접의 다단계 선발이 이루어지며, 실기평가는 한국무용, 발레 중 전공분야 실기시험으로 실기평가 동작은 시험 당일 공개하여 각 전공별로 기초 동작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결 동작을 따라하는 형식

으로 구성된다. 심층면접은 접수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동기, 목표, 수상 경력, 각 오와 희망 등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기와 면접 비율은 실기평가는 80%, 심층면접은 20%로 구성되며 점수를 합산하여 학년 구분이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실기평가 우수자, 저학년, 출생일이 늦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라) 울산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울산예술고등학교는 예술(미술, 무용, 음악)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예술고등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재학생으로서 예능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영재를 선발한다. 무용영재는 세부전공으로 발레 전공자로 제한하여 선발하며 모집 정원은 전체 20명으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모집 정원에서 10% 이내의 범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1차는 학교장 추천서와 전형 서류 제출, 2차는 영재성 검사로 영역별 실기전형이 이루어지며, 기초실기 연결동작을 따라하기 형식으로 당일 시험장에서 동작이 주어지며 응시 소요시간은 2분 이내다. 3차는 전공 영역에 관한 면접이 진행되는 데 성적 반영비율은 2차 영재성 검사가 100%로 반영되며 3차 면접에 불참 시에는 합격에서 제외된다. 무용영재 선정 기준은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영재성 검사 영역별 실기 성적이 높거나 출생일이 늦은 순으로 선정하며,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학능력을 심의한 후 영재학급 운영학교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마) 강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강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의 교육 목표는 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하며, 창의력과 탐구력, 사고력이 뛰어나며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무용영재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세부전공으로 초등 영재와 중등 영재로 나누어 모집하며 초등 영재는 초등학교 3~5학년, 중등 영재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각 20명 정원 이내로 선발한다. GED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입력한 학생에 한하여 실기 전형을 실시하며 무용 분야에 예술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선발 절차는 다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전형은 GED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입력하고 2단계는 심층면접 및 실기시험이 실시되는데 실기시험은 전공 별 따라하기 형식으로 면접은 10점 만점, 실기시험은 90점 만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점수 산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바)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충남예술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에 예술적인 잠재력을 지닌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예술가로서의 인성 및 자질을 함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미래문화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예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우수 예술 영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은 현재 충청남도 지역 도내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영재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세부전공으로 전체 15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무용영재를 선발하는 과정은 1차는 학교장 추천, 2차는 상황중심 관찰평가, 창의적 표현력 평가가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의 학교장 추천은 학교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하여 심사하며, 2차의 상황중심 관찰평가는 2분 이내의 개인별 작품과 체계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창의적 표현력은 1분 이내의 무용 과제를 제시한 후 따라하기 유형의 실기시험을 통해 무용영재를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2차 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의 선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상황중심 관찰평가로 개인별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1순위이며, 그 다음 2순위로는 체격, 3순위로는 따라하기 형식의 창의적 표현력 평가 고득점자, 마지

막으로 생년월일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표 II-4〉 국내 영재학급 무용영재 선발기준

교육 기관명	세부전공	선발기준
계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지망동기, 자신의 목표, 수상경력, 각오와 희망 등 설문지
안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인성, 적성 면접
고양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한국무용 발레	전공실기, 지망동기, 자신의 목표, 수상경력, 면접
울산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발레	전공실기, 면접
강원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면접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학급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상황중심관찰(개인 작품, 체격) 창의적 표현력

3) 국내 무용영재교육 선발인원

국내 무용영재교육 선발 기준과 더불어 선발 인원을 함께 알아보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시점인 22년 6월 기준 2021학년도까지 집계되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분석 결과는 〈표 II-5〉와 같다.

〈표 II-5〉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단위 : 명)

구분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교육청	대학부설		
예술분야	-	1,211	1,220*	1,095	3,869
무용분야	-	138	61*	29	228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포함

2021학년도 무용분야 영재교육 대상자는 총 228명으로, 예술분야 영재교육 대상자 3,869명의 5.8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영재교육원에서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은 199명이었으며, 이들 중 교육청 영재교육원 재학생이 138명,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재학생이 61명으로 나타났다. 단위영재학급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미술분야 9개(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대구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대구, 경북),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영재교육원, 서울대학교 창의예술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미술영재교육원, 한양대학교 미술영재교육원), 음악분야 6개(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강남대학교 부설 음악영재교육원, 건국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서울교육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의 기관이 존재하지만, 무용분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유일하다.

4) 국가지정 영재교육원 성과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무용분야의 유일한 국가 운영 영재교육원이다. 국내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30여 년 전부터 기관차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진학, 진로, 수상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여겨진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은 예술영재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할 때 전통예술품을 하나의 분야로 취급하지 않고, 전통음악은 음악분야로, 전통연희와 전통무용은 무용분야로 분석한다. 국내 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분류하고, 최근 지역 예술영재교육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개설된 지역캠퍼스를 구분한 결과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무용분야 영재교육대상자 상세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부설					교육청	영재 학급	합계
	무용분야			전통예술				
	서울	경남	세종	서울	경남			
학생 수	34	7	9	9	2	138	29	228

이들이 외부의 인식만큼 실제로도 우수한 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최근 5년 무용분야 수상 성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객관적으로 콩쿠르 입상 성과에 한정하여 집계하기 위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용협회(CID-UNESCO)의 인증 및 국제무용연맹(WDA, World Dance Alliance)의 연맹 콩쿠르,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무용 콩쿠르, 대학 및 예술중고교, 기타 예술성을 인정받는 우수 콩쿠르 결과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I-7〉과 같다.

〈표 II-7〉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연도별 성과

(단위: 회)

년도	국내	국외	계
2021	54	27	81
2020	39	24	63
2019	68	30	98
2018	85	29	114
2017	106	14	120
합계	352	124	476

위의 표를 살펴보면, 2019년(19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콩쿠르가 축소 및 중단되면서 수상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연간 100회 내외의 수상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무용영재 교육대상자 총 230명 중 15% 내·외 범위에 해당하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가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4) 국내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 시사점

국내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을 살펴본 결과 각 기관의 공통된 특징은 무용영재 선발 시 무용수행능력과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판별한다는 점이다. 우선 무용수행능력은 전공분야의 실기과제를 제시하여 평가하는데 이 때 무용수행 능력에 대한 선발기준은 테크닉 수준 뿐 만 아니라 동작 이해력, 습득력, 재현능력 등과 신체능력(유연성, 순발력, 회전력 등), 체격(튼아웃, 발의 형태, 신체형태 등) 등의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면접으로 대부분 해당 학생의 인성 및 적성 사, 지원동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데 이는 그 학생의 무용에 대한 태도 즉 심리영역(자신감, 통제력, 열정, 동기 등)의 수준을 변별해 주는 선발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내 무용영재 교육기관은 무용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뛰어난 수행력을 기준으로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외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

한국에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이후부터야 무용영재 선발이 시작되었다면, 해외 발레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었다. 해외 무용영재 선발은 발레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이 구축한 체계화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판별되고 있다.

1) 뉴욕시티발레단 부설 미국발레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

(1) 교육 목표

미국은 영재교육법(1988년) 공포 이후에 주정부 교육부에 영재교육과 관련된 부서를 설치하여 영재교육 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미국의 영재교육법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계층과 소수 민족 출신의 영재를 발굴하여 그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무용영재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는 저명한 무용가였던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과 무용평론가였던 링컨 커스틴(Lincoln Kirstein)이 1934년에 뉴욕에 설립한 뉴욕시티발레단(New York City Ballet)의 부설 미국 발레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를 들 수 있다. 미국 발레학교는 미국 발레의 전통이 될 예술적인 혁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무용 분야를 창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발레학교는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예술적인 대표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이들은 미국 발레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무용수를 양성하기 위해 그러한 다양성이 증진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조직적인 사명을 갖고 지도하고 있다.

(2) 선발 기준 및 과정

미국 발레학교의 교육과정은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정규 무용교육과정(Winter Term)과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5주간에 진행되는 여름학기로 구성된다. 정규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오디션은 매년 9월에 6~18세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름학기 오디션은 3, 4월에 진행되는데 규정에 따라 12~18세의 연령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브룩클린(Brooklyn), 퀸즈(Queens), 할렘(Harlem), 차이나타운(Chinatown), 브롱크스(Bronx) 지역에서 오디션이 열리며, 6~18세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150명을 선발한다.

오디션은 바와 센터를 포함한 발레 테크닉 수업으로 1시간동안 진행되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전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5세 이상의 여학생은 오디션동안 포인트 슈즈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여학생은 포인트를, 남학생은 바투(Battu)와 공중 회전 동작 등을 수행한다. 오디션에서는 동작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신체의 균형과 비율, 유연성, 협응성, 다리의 턴 아웃 자세, 높은 발등, 음악적 적성과 자연스러운 움직임 등을 평가한다.

2)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

(1) 교육 목표

영국은 1999년에 발표한 하원교육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이후에 교육부 내에 영재과(Gifted and Talented Unit)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 영재조정관을 임명하면서 영재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영국의 영재교육은 각 지방교육청 및 학교 기관이 담당하고 중앙 정부는 이들의 교육 활동을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양한 영재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안예진, 2007).

영국의 무용영재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는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를 들 수 있다. 영국로열발레학교는 1926년에 아일랜드 출신의 무용수 Ninette de Valois에 의해 설립된 발레학교이다. 영국로열발레학교의 목표는 자신의 잠재적인 무용수행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과 함께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세계 무용계를 이끌 수 있는 뛰어난 무용수와 안무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2) 선발 기준 및 과정

영국로열발레학교의 오디션은 매년 1, 2월에 전국에서 실시되며,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다. 오디션은 다단계 전형으로 구성되는데 1차 시험에서는 기초 발레 동작 수행으로 응시자의 무용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즉흥무용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리듬감각, 예술적인 표현능력, 상상력과 창작 능력을 심사한다. 2차 시험에서는 키, 발레에 적합한 신체 구조, 유연성, 신장성, 유연성, 도약성, 신체적 리듬각각, 탄력성, 활동 능력, 균형 감각, 민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신체검사와 함께 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무용에 적합한 신체조건과 무용수행 능력과 더불어 무용에 적합한 인·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3)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

(1) 교육 목표

러시아의 예술영재교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무용전문 교육기관으로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를 들 수 있다.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는 1738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황실무용학교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러시아 무용 교육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무용전문 교육기관이다. 고전주의의 산실인 러시아의 전통적인 클래식 발레를 추구하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무용수를 양성하고 있다.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에서 실천하는 교육 목표는 무용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적 수단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인간의 풍부한 내적 세계를 밝힐 수 있는 뛰어난 무용수의 양성하고자 한다(정희자, 2005).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가노바 교수법을 기초로 올바른 무용지도 방법을 함양하고 있는 전문적인 무용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선발 기준 및 과정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의 무용영재 선발 연령 기준은 9~10세이며, 매년 2~3월에 러시아 전역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는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그리고 실기시험 및 음악성과 표현력검사 등의 다양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별한다. 신체검사에서는 발레에 적합한 신체적 구조, 발등의 굴곡 정도, 유연성, 도약력, 탄력성, 턴 아웃 등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신체검사 이후에는 학교가 지정한 전문 의사로부터 신체의 모든 골격, 관절, 심장, 폐 등의 신체기관, 신경조직, 시력, 청력 등을 면밀하게 검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동작과 음악적 예술 표현, 리듬감과 음악성, 신체적인 균형감각, 테크닉 등 발레 영재로서 잠재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최종 선발한다(이유성, 2009).

4) 캐나다국립발레학교(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

(1) 교육 목표

캐나다국립발레학교(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는 Betty Oliphant와 Celia Franca가 1959년에 설립한 전문 발레 교육기관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웰빙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통해 캐나다와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엘리트 무용수, 안무가, 교육자, 예술 감독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발레 교육 이외에도 교사 연수 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셰어링 댄스 프로그램(Sharing Dance program)을 제공하여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 성인,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가진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발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캐나다 국립발레학교는 발레 교육 분야의 국제적인 리더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무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선발 기준 및 과정

캐나다 국립발레학교의 전문 발레 프로그램은 1단계의 내셔널 오디션 투어(National Audition Tour)와 2단계의 여름학교 프로그램(Summer School Program)로 구성되며, 6~12학년에 재학 예정인 학생들이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름학교 오디션에는 5학년부터 응시할 수 있다. 1단계의 내셔널 오디션 투어는 매년 가을과 겨울에 캐나다의 오타와, 벤쿠버, 토론토를 비롯한 18개의 도시 지역에서 오디션과 오픈 클래스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하며, 외국에 거주하여 오디션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비디오 영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단계의 오디션 투어는 국립발레학교의 교수진에 의한 수업으로 오디션은 클래식 발레에서 요구하는 협응, 음악성, 움직임의 질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적합성 등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 단계는 필요하지 않으며, 12세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디션 참가 이전에 무용을 배운 경력이 필수적인 요건 사항이 아니다.

2단계 프로그램인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전문 발레 프로그램(Professional Ballet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거나 여름학교 오디션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오디션에서 선발된 17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7월 4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다.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캐나다 국립발레학교의 전통적인 발레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받으며, 학업 테스트 결과와 대인 관계적인 기술 또한 평가받게 된다. 프로그램과 여러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여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대략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9월에 예정된 전문 발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표 II -8〉 국외 무용영재기관 선발기준

교육 기관명	선발기준
뉴욕시티발레단 부설 미국발레학교 (School of American Ballet)	신체적 조건(발레에 적합한 신체구조), 음악적 재능, 연령에 맞는 테크닉 구사 능력, 예술적 표현능력, 건강진단서(신체상태, 시력, 청각, 신경조직 등)
영국로열발레학교 (The Royal Ballet School)	실기검사(기본 발레 움직임, 기본 체력 테스트, 즉흥무용, 상상 력, 음악적인 리듬감각 평가) 건강진단서(세부 신체검사, 시력, 청각, 신경조직 등) 신체검사(발레에 적합한 신체구조, 유연성, 팔 동작의 리듬감, 유 연성, 도약성, 발동작의 탄력, 균형감각 등) 부모와의 면담(응시자의 자질과 성격)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Vaganova Ballet Academy)	신체검사(발레에 적합한 신체적 구조, 발등의 굴곡 정도, 유연성, 도약력, 탄력성, 턴 아웃 등) 건강진단서(신체의 모든 골격, 관절, 심장, 폐 등의 신체기관, 신 경조직, 시력, 청력 등) 실기시험(동작과 음악적 예술 표현, 리듬감각과 음악성, 신체적 인 균형감각, 테크닉) 표현력검사 등
캐나다국립발레학교 (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	건강진단서(평형감, 운동감각, 관절, 근육의 유연성 turn-out의 정도 등) 발레에 적합한 신체적 구조를 검사 기본적인 실기 동작 구사(신체적 적합성, 조화, 유연성, 음악성, 표현력 등을 평가)

다. 해외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선발기준 시사점

해외 무용영재교육 기관의 공통된 특징은 체격과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신체적 조건을 살펴보면 무용영재의 선발 시기는 만 10세~만 11세로 제한한다. 이는 골격이 완성되기 이전의 나이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무용영재로서의 이상적인 체격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전문 의료인에 의해 세부적인 건강진단과 신체검사를 받고 있으며, 발레에 적합한 신체적 구조의 유무를 세분화하여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수행능력, 심리 및 가정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판별과정을 통해 무용영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무용

전문 학교에서는 무용영재를 선발하는 단계부터 매우 체계적이며 세부적인 선발 기준을 바탕으로 무용영재 판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용에 적합한 신체영역 외에도 무용수행, 창의성, 심리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인 탐색

연구진은 앞서 제시한 무용영재성의 개념 및 구성 요인,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 기준과 현황을 바탕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소수의 조사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 방법이다(김성혜, 이경진, 2014).

보통 6-1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 명의 대상자가 집단으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강주희, 2018). 본고에서는 FGI 면접법을 활용하여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요인과 하위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 조사대상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무용영재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연구진은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따라 추천받은 이들 중 선별을 통해 무용영재 교수자 4인과 행정가 3인을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협의회에서 이들의 적합도를 재차 논의하였다. 선정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무용영재교육 교수 1인 및 연구자 3인이 연구회의를 실시하였다. FGI 및 전문가 협의회 참여한 조사 대상의 구성은 표 <II-9>와 같다.

〈표 II -9〉 상위수준 무용영재 요인 탐색 FGI 참여 전문가

구분	이름	전문분야
교육자	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수경력 22년 무용수 경력 31년 이상
	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수진 무용영재 교수경력 20년 이상
	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수진 무용영재 교수경력 15년 이상
	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수진 무용영재 교수경력 15년 이상
	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수진 무용분야 교수경력 15년 이상
행정가	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행정전문가
	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행정전문가
	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행정전문가
연구자	이○○	전)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무용연구원 무용영재교육 연구경력 10년 이상
	오○○	무용교육 연구경력 10년 이상 무용영재교육 연구경력 5년 이상
	정○○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연구원 무용영재교육 연구경력 5년 이상

나. 조사내용 및 방법

먼저 FGI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을 하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조작적 정의 및 구성요인에 대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요인에 대한 쟁점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FGI면담 결과는 서면으로 정리하였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조작적 정의 및 구성요인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연구회의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결과

1)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인

무용영재, 특히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아름다운 신체와 능숙한 기술력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세계가 중요하므로 영재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 중시된다. 전문가들은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결정짓는 신체, 심리, 수행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발레를 잘 하는 아이들의 특성은 다 똑같지 않아요. 기억력, 순발력, 지속력 이런 게 골고루 갖춰져야 해요. 순발력은 있는데 지속력이 떨어지는 애가 있고, 순발력이 떨어져서 조금 늦게 알아들어도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해내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력까지 있는 아이, 다르죠.

(교육전문가 김○○)

일단은 몸의 언어니까. 몸이 예뻐야죠. 그런데 신체(조건)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신체, 지능, 예술성, 정신력이 다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퀄리티가 다른거죠. 예를 들어 신체(조건)가 뛰어나지만 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우선 뽑아봐요. 여기서 정신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애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아이들을 결정짓는 건 예술성인 거죠.

(교육전문가 조○○)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냥 의지인 것 같아요.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거죠. 기본적인 체격이 일단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가 해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도달 할 수 있죠. 신체와 끈기, 의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교육전문가 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일단 영재라고 하면 기본적인 신체의 형태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안에서도 높은 수준의 영재라 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친구들,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어야 춤이 성장하고, 늘죠.

(교육전문가 심○○)

이처럼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좋다거나 수행력(테크닉 등)이 좋다고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용영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무용영재성 특히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개념은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영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었다.

발레 영재는 발레 예술에 적합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발레에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김준미 외, 2003)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오레지나 외, 2005)

신체적 조건, 능력, 창의력, 과제집착성의 영재성 구성요인이 모두 탁월한 수준이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상의 무용수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0)

현재 춤을 잘 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춤을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뛰어난 잠재적인 무용재능을 가진 사람 (이진효 외, 2011)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잠재성과 태도를 지닌 자로서, 잠재된 무용능력(신체능력, 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력, 무용성향 등)이 뛰어나거나 무용영재 교육을 통해 그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타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무용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8)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재능이 질적으로 뛰어나며,
무용영재 구성요인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 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자**

무용영재성에 대한 논의는 무용과 영재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구되는 원리들의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이진호, 2017). 앞서 제시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조작적 정의에서 언급한 ‘무용영재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구성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신체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네요. 신체, 테크닉, 무용수행, 창의성, 심리, 환경 모두가 중요한 요인
(교육전문가 임○○)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신체, 신체지능(body intelligence), 예술성, 정신력이 다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퀄리티가 다른 거죠. 올라와 있는 예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아이들을 결정짓는 건 예술성이죠. (교육전문가 조○○)

영재라고 하면 기본적인 신체의 형태나 테크닉, 신체 기능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상위수준 영재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친구들,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있죠. 그것이 상위수준 영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유○○)

선행연구 탐색을 기반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구성 요인을 신체적 요인과 무용 능력,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수 선행연구 모형 그리고 무용심리학 관점의 무용영재성 연구(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 2005)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구성요인을 조작하였다.



[그림 II -5]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조주현(2007) 연구를 재구성)

(가) 신체영역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인 김춘미 외(2003), 오레지나 외(2005), 이진호 외(2011)에 의하면 신체조건 또는 무용 체격, 신체운동능력, 체력 요인이 공통적인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으로 나타났다. 뉴욕시티발레단 부설 미국발레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와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에서는 신체 구조가 선발 기준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신체영역은 무용영재성의 기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FGI 참여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단은 어려도 외형을 봐요. 외모 중에서도 비율. 머리는 작고, 허리는 짧고, 팔다리는 긴, 무용수로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비율을 보게 되죠. 발레는 모든 셰이프가 아름다워야 하거든요. (교육전문가 김○○)

저는 신체적인 게 일단 기본이에요. 저희는 상위수준 영재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신체적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략) 신체적 요인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교육전문가 유○○)

체격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게, 발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아무리 잘해도 중학생하고 같이 수업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해석력도 좋아, 감수성도 뛰어나, 그러면 더 알맞은 과제를 줘야지 중학생 반에 갈 수 없어요. 몸 때문에. 골격이 다르고 근력이 다르니까. 1년, 1년 몸의 발달이 다르고, 아이마다 다르니까. (교육전문가 조○○)

신체적인 영역에 체력이 포함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해요. 기초체력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고도로 체력이 길러지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해요. 이런 부분이 무용수행(연습)에 속할 수도 있지만 신체적인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육전문가 심○○)

체력이 신체적인 영역인지, 수행영역인지 의견이 나눌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체력이 있고 보는가 하면, 또 무용 수행을 함에 있어서 체력을 바탕으로 무용 동작들이 나온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회전력 같은 경우에는 무용 수행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체력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무용 체격과 무용 체력으로 나뉘는 것처럼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도 체격적 영역과 체력적 영역을 그냥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교육전문가 임○○)

교육전문가들은 신체영역에서도 외형에서 보이는 신체 구조를 강조하였다. 교육전문가 김○○은 신체구조에서도 신체 비율의 조화, 심○○과 임○○은 신체 구조만큼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체 영역은 신체 구조(체격)와 체력을 나누어 분류할 수 있으며, 신체 구조에는 신장과 근육의 형태, 신체 비율 등으로, 체력은 회전력과 유연성, 순발력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수행영역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표현력과 청음능력(김춘미 외, 2003), 움직임 수행능력과 표현 및 창작능력(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07), 표현 및 창의성(이진효 외, 2011), 심상표현 지능(윤서진, 2022)이 수행영역의 구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시티발레단 부설 미국발레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는 음악적 재능과 예술적 표현능력,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는 음악적인 리듬감각 평가,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는 동작과 음악적 예술 표현과 음악성, 표현력 검사,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는 음악성과 표현력이 선발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을 하는데 테크닉 적인 부분이란 예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또 조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영역에는 체력적인 것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고요. 어떻게 딱 이런 영역이다 나누기는 힘든 장르 같아요. 무용이. 테크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영역들과 관객에게 보여주는 영역, 연기력, 표현력, 음악성 같은 영역이 나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정○○)

음악성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하는 학생들에서도 나뉩니다. 음악의 리듬을 잘 탄다거나 멜로디와 하모니를 잘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음악성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전문가 임○○)

무대에서 보면 유난히 눈이 가는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드되를 보면 남학생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여학생은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보통 여학생에게 눈이 더 가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남학생에게 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표현이 섬세하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 표현력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전문가 유○○)

무용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표정과 감정으로 나타내는 연기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기(음악, 드라마) 요소를 활용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기력으로 분류하면 어떨까요. (교육전문가 심○○)

결국 보이는 공간은 무대인데 무대에서의 공간 인식 능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대를 파악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력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장악력과 무대 파악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무대 존재감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오○○)

(다) 심리영역

조주현(2007)은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으로 심리 요인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으며, 윤서진(2022) 또한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외 무용영재 기관에서는 심리영역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시티발레단 부설 미국발레학교(School of American Ballet)에서는 웰빙 커리큘럼에서 영양 및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심리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에서는 심리학 수업을 통해 회복력과 집중력 등을 배울 수 있다. 선행연구와 현재 진행되는 교육에 따르면 신체영역과 심리영역은 함께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동기로 볼 수 있고 심리영역에서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입하는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몰입과 애착이나 열정을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이○○)

보통 심리학, 무용학에서는 몰입을 얘기 할 때 무대에서의 몰입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용에 대한 애착과 열정 말고 몰입은 따로 분류해서 보면 어떨까요. (연구자 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끝까지 버티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제에 대한 집착력과 열정의 차이예요. 한 번에 완벽한 학생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과제 집착력에서 볼 수 있었어요.

(교육전문가 심○○)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통제예요. 결국은 끝까지 참고 버티는 학생들이 결국 올라가요. 그리고 버티본 학생들이 계속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건 결국 자기통제력에서 오는 거죠.

(교육전문가 임○○)

무용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두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닌 건 아니예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성격인데 춤을 딱 시작하면 눈빛부터 달라지죠. 순간 집중할 수 있는 힘. 집중력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유○○)

무대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거나 작품을 할 때 모든 순간에 모두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스스로 얼마나 잘 조절해 내느냐에 따라서 춤은 완전히 달라져요. 긴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봐요. (교육전문가 심○○)

선이의 경쟁이라고 하죠. 동료 간에 긍정적인 경쟁심은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게 해요. 자신한테 자극이 되는 동료를 보고 동료처럼 더 성장하고 싶어 하고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김○○)

(라) 환경영역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을 나타내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주현(2007), 황명자(2012)는 환경 요인을 무용영재성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영국로열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의 선발 과정 중에는 부모와의 면담이 포함되는데 이는 응시자의 자질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환경영역에서는 국내의 특수한 부분이나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므로, 선행연구나 타 기관의 선발 요인을 참고하되 교육전문가들의 경험을 위주로 의견을 모았다.

뛰어난 무용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더 수준 높은 영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방법이 밑바탕으로 존재해야 해요.
(교육전문가 유○○)

학생들에게 무대경험은 프로로 진출 했을 때 본인의 역량을 훨씬 더 잘 표출하게 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의 반대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의 지지 또한 환경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교육전문가 김○○)

좋은 학생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최상이라고 하죠.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 학생들은 변합니다. 지도자의 역량과 지지가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열정과 지지, 그리고 학생과의 교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이○○)

환경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국가정책적 요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운영기관이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 정○○)

교육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환경영역은 단순히 환경을 뜻하는 것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환경영역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환경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수준별 교육방법, 무대경험, 부모의지지, 지도자의 역량, 국가적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5. 종합 및 시사점

무용영재성의 개념 및 구성 요인, 국내·외 무용영재 선발 기준과 현황을 바탕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결정짓는 요소로 신체, 심리, 수행력을 강조하지만,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좋거나 수행력(테크닉 등)이 좋다고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용영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되,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재능이 질적으로 뛰어나며, 무용영재 구성요인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 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자’**로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범위를 함께 논의하였다. FGI에서는 전체 무용영재 228명 중 34명이 재학(2021학년도 기준)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상위수준 무용영재 뿐만 아니라 무용분야 전체 기관의 구체적 실적이나 통계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뛰어나다’ 정도의 인식만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되기도 전 부터인 30년 이상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영국 로얄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워싱턴발레단, 보스턴발레단, 한국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무용단의 예술가들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수의 콩쿠르에서 연 평균 95.2회의 수상을 하는 우수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어 선정하였다. 다만,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성과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지하여 선정한 것이므로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다음은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구성요인으로, 신체영역, 수행(performance)영역, 심리영역, 환경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영역은 체격과 체력, 수행영역은 무용수행과 신체지능의 하위 영역을 가진다. 먼저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하는 장르, 신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행영역은 무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능력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용수행과 신체지능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열정, 몰입, 과제집착, 인내, 경쟁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영역을 구성하였으며, 환경영역의 경우 국내의 특수한 부분이나 분위기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므로 선행연구나 타 기관의 선발 요인을 참고하되 교육전문가들의 경험을 위주로 의견을 모았다.

신체영역		수행영역		심리영역	환경영역
체격	체력	무용수행	신체지능		
신체비율	근지구력	관객소통능력	조화력	동기	수준별교육
턴아웃	회전력	무대존재감	(수행간협응)	열정	교육환경
발의 형태	도약력	연기력	동작이해력	과제집착	지도자의열정
고관절가동	점프력	즉흥능력	동작습득력	자기통제	지도자와교류
신체형태	유연성	음악성	동작재현능력	집중/몰입	지도자의역량
관절유연성	순발력	동작분석력	해석력	불안조절능력	무대경험
		무용창의성		동료경쟁심	영재교육지지
		응용력		인내심	가정의지지
				자신감	국가지원

Ⅲ. 상위수준 무용영재 인식 및 요구도 분석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선행연구와 FGI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요인들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순위와 가중치가 도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면담 구성 체계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조사대상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무용영재 교육자 및 연구자 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교수자 11명(55%), 연구자 6명(30%), 기관담당자 3명(15%)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 모두 여자(100%), 경력은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높게(40%)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이하가 6명(30.0%), 16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5년 이하가 각 2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0	0%
	여	20	100%
학력	석사	16	80.0%
	박사	4	20.0%%

구분		인원(명)	비율(%)
경력	5년 이하	2	10.0%
	5-10년	6	30.0%
	11-15년	8	40.0%
	16-20년	2	10.0%
	21-25년	2	10.0%
직업	교수자	11	55.0%
	기관 담당자	3	15.0%
	연구자	6	30.0%
합계		20명	100

나. 조사방법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인식 및 가중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무용영재교육 담당교수 1인과 무용교육 관련 연구자 3인의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에 대한 문헌적 접근을 바탕으로 전문가 10인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항은 무용교육 전문가 4명과 연구자 3명에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이해수준 및 중복된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무용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도구의 소요시간, 문항의 이해도를 파악하였으며, 중복된 수준 및 문장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각 설문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후 검사에 들어갔으며,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다. 조사도구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신체적영역(체격 6문항, 체력 6문항), 수행영역(무용수행 8문항, 신체지능 6문항), 심리영역(9문항), 환경 영역(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GI에서 언급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요인에 대

해 빈도별로 분석한 후 무용영재교육 담당교수 1인과 무용영재교육 연구자 3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영역별 구성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조사도구 영역별 문항

구분		문항
신체영역	체격	6
	체력	6
수행(performance)영역	무용수행	8
	신체지능	6
심리영역		9
환경영역		9
합계		44

라.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통계(빈도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실시하였다.

무용분야 일반영재와 상위수준영재의 요구도 즉, 필요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과 Borich 요구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t-검정은 일반영재의 필요수준과 상위수준영재의 평균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은 일반영재 필요수준과 상위수준영재 필요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결과 값을 나열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며, 필요수준의 평균값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수준이 높을수록,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Borich, 1980; 조대연, 2009; 남수영, 김성혜, 2019).

2. 조사결과

가.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인식 분석

1) 신체(체격) 영역

신체(체격)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신체 비율의 평균 4.65점, 턴 아웃 4.8점, 발의 형태(포인트) 4.8점, 고관절 가동범위 4.8점, 곧고 긴 근육 4.7점, 큰 키 4.05점, 유연한 관절 4.7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턴 아웃과 발의 형태(포인트), 고관절 가동 범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큰 키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인식 분석 결과

신체(체격) 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순위
	1	2	3	4	5			
① 곧고 긴 근육	0 (0.0)	1 (5.0)	0 (0.0)	4 (20.0)	15 (75.0)	4.65	.745	3
② 턴 아웃	0 (0.0)	0 (0.0)	0 (0.0)	4 (20.0)	16 (80.0)	4.80	.410	1
③ 발의 형태(포인트)	0 (0.0)	0 (0.0)	0 (0.0)	4 (20.0)	16 (80.0)	4.80	.410	1
④ 고관절 가동 범위	0 (0.0)	0 (0.0)	0 (0.0)	4 (20.0)	16 (80.0)	4.80	.410	1
⑤ 신체 비율	0 (0.0)	0 (0.0)	3 (15.0)	0 (0.0)	17 (85.0)	4.70	.733	2
⑥ 큰 키	0 (0.0)	1 (5.0)	5 (25.0)	6 (30.0)	8 (40.0)	4.05	.945	4
⑦ 유연한 관절	0 (0.0)	0 (0.0)	2 (10.0)	2 (10.0)	16 (80.0)	4.70	.657	2
합 계						4.64±0.62		

2) 신체(체력) 영역

신체(체력)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근지구력의 평균 4.85점, 회전력 4.65점, 도약력(점프력) 4.9점, 유연성 4.9점, 순발력(민첩성) 4.7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도약력(점프력)과 유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전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인식 분석 결과

신체(체력) 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2	3	4	5			
① 근지구력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444	2
② 회전력	0 (0.0)	0 (0.0)	2 (10.0)	3 (15.0)	15 (75.0)	4.65	.366	4
③ 도약력(점프력)	0 (0.0)	0 (0.0)	0 (0.0)	2 (10.0)	18 (90.0)	4.9	.410	1
④ 유연성	0 (0.0)	0 (0.0)	0 (0.0)	2 (10.0)	18 (90.0)	4.9	.410	1
⑤ 순발력(민첩성)	0 (0.0)	0 (0.0)	2 (10.0)	2 (10.0)	16 (80.0)	4.7	.000	3
합 계						4.80±0.33		

3) 수행(무용수행) 영역

무용수행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관객 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의 평균 5점, 무대 존재감(무대 장악력) 4.85점, 연기력 4.8점, 표현력 4.8점, 음악성 4.75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관객 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5>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인식 분석 결과

무용수행 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순위
	1	2	3	4	5			
① 관객 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	0 (0.0)	0 (0.0)	0 (0.0)	0 (0.0)	20 (100)	5.00	.444	1
② 무대 존재감(무대 장악력)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366	2
③ 연기력	0 (0.0)	0 (0.0)	0 (0.0)	4 (20.0)	16 (80.0)	4.80	.410	3
④ 즉흥능력	0 (0.0)	0 (0.0)	1 (5.0)	5 (25.0)	14 (70.0)	4.65	.587	5
⑤ 음악성	0 (0.0)	0 (0.0)	0 (0.0)	5 (25.0)	15 (75.0)	4.75	.000	4
⑥ 동작 분석력	0 (0.0)	0 (0.0)	0 (0.0)	5 (25.0)	15 (75.0)	4.75	.444	4
⑦ 무용 창의력	0 (0.0)	0 (0.0)	1 (5.0)	6 (30.0)	13 (65.0)	4.60	.598	6
⑧ 응용력	0 (0.0)	0 (0.0)	1 (5.0)	1 (5.0)	18 (90.0)	4.85	.489	2
합 계						4.78±0.42		

4) 수행(신체지능) 영역

신체지능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화력(콤비네이션, 수행 요소 간 협응)의 평균 4.95점, 이해력(지도, 학습, 작품, 캐릭터 등) 4.85점, 습득력(동작, 작품, 캐릭터 등) 4.85점, 즉흥능력 4.65점, 동작 재현능력(모방능력) 4.8점, 분석력(무대, 동작, 공간, 작품, 동작, 캐릭터 등) 4.75점, 무용 창의력 4.6점, 응용력 4.85점, 해석력(자기화) 4.95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조화력(콤비네이션, 수행 요소 간 협응)과 해석력(자기화)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용 창의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6〉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인식 분석 결과

신체지능 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순위
	1	2	3	4	5			
① 조화력 (수행 요소 간 협응)	0 (0.0)	0 (0.0)	0 (0.0)	1 (5.0)	19 (95.0)	4.95	.444	1
② 동작 이해력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366	2
③ 동작 습득력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410	2
④ 동작 재현능력 (모방능력)	0 (0.0)	0 (0.0)	1 (5.0)	2 (10.0)	17 (85.0)	4.80	.410	3
⑤ 해석력	0 (0.0)	0 (0.0)	0 (0.0)	1 (5.0)	19 (95.0)	4.95	.000	1
합 계						4.88±0.33		

5) 심리 영역

심리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의 평균 5점, 애착과 열정 4.95점, (무용 수행에 대한)과제 집착력 4.85점, 자기통제력 4.8점, 집중력 4.9점, 불안조절능력 4.55점, 동료 간 경쟁심 4.2점, 대담함 4.5점, 자신감 4.65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 간 경쟁심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7〉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인식 분석 결과

심리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순위
	1	2	3	4	5			
①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0 (0.0)	0 (0.0)	0 (0.0)	0 (0.0)	20 (100)	5.00	.000	1
② 애착, 열정	0 (0.0)	0 (0.0)	0 (0.0)	1 (5.0)	19 (95.5)	4.95	.224	2
③ 과제 집착력	0 (0.0)	0 (0.0)	1 (5.0)	1 (5.0)	18 (90.0)	4.85	.489	4
④ 자기통제력	0 (0.0)	0 (0.0)	1 (5.0)	2 (10.0)	17 (85.0)	4.80	.523	5
⑤ 집중력	0 (0.0)	0 (0.0)	1 (5.0)	0 (0.0)	19 (95.5)	4.90	.447	3
⑥ 불안조절능력	0 (0.0)	0 (0.0)	2 (10.0)	5 (25.0)	13 (65.0)	4.55	.686	7
⑦ 동료 간 경쟁심	0 (0.0)	0 (0.0)	5 (25.0)	6 (30.0)	9 (45.5)	4.20	.834	9
⑧ 대담함	0 (0.0)	0 (0.0)	4 (20.0)	2 (10.0)	14 (70.0)	4.50	.827	8
⑨ 자신감	0 (0.0)	0 (0.0)	1 (5.0)	5 (25.0)	14 (70.0)	4.65	.587	6
합 계						4.71±0.51		

6) 환경 영역

환경 영역에 대한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준별 교육(학제별(초1, 초2 등)이 아닌 레벨별)의 평균 4.85점, 교육환경(쾌적한 공간, 연습 할 확보 등) 4.6점, 지도자의 열정 4.7점, 지도자의 지지 및 교류(심리) 4.85점, 지도자의 전문 역량 4.95점, 무대 경험 4.65점, 소속 학교의 (영재교육에 대한)지지 4.65점, 부모 및 가정의 지지 4.85점,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 4.95점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중에서 지도자의 전문 역량과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쾌적한 공간, 연습 할 확보 등)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표 III -8〉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인식 분석 결과

환경 영역	빈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순위
	1	2	3	4	5			
① 수준별 교육	0 (0.0)	0 (0.0)	1 (5.0)	1 (5.0)	18 (90.0)	4.85	.489	2
② 교육환경(쾌적한 공간, 연습/체력운동 공간 등)	0 (0.0)	0 (0.0)	2 (10.0)	4 (20.0)	14 (70.0)	4.60	.681	5
③ 지도자의 열정	0 (0.0)	0 (0.0)	2 (10.0)	2 (10.0)	16 (80.0)	4.70	.657	3
④ 지도자의 지지 및 교류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366	2
⑤ 지도자의 전문 역량	0 (0.0)	0 (0.0)	0 (0.0)	1 (5.0)	19 (95.0)	4.95	.224	1
⑥ 무대 경험	0 (0.0)	0 (0.0)	1 (5.0)	5 (25.0)	14 (70.0)	4.65	.587	4
⑦ 소속학교의 (영재교육에 대한) 지지	0 (0.0)	0 (0.0)	0 (0.0)	7 (35.0)	13 (65.0)	4.65	.489	4
⑧ 부모 및 가정의 지지	0 (0.0)	0 (0.0)	0 (0.0)	3 (15.0)	17 (85.0)	4.85	.366	2
⑨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	0 (0.0)	0 (0.0)	0 (0.0)	1 (5.0)	19 (95.0)	4.95	.224	1
합 계						4.78±0.45		

7)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인식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무용영재 교육자 및 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높은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격		수행		심리		환경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관절가동범위	1	조화력	1	동기	1	지도자의역량	1
턴아웃	1	해석력	1	애착/열정	2	국가지원	1
발의형태	1	관객소통능력	1	집중력	3	수준별교육	1
유연성	1	무대존재감	2			지도자의지지	2
점프력	1	응용력	2			가정의지지	2

[그림 III-1]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인식 분석 결과 종합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신체 영역 중 체격 영역은 고관절 가동 범위, 발의 형태, 턴 아웃을 체력 영역에서는 도약력, 유연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영재성에서 신체적인 요인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먼저 무용 체격은 신체의 근육, 골격 등의 외관적인 형상과 신체 정렬의 상태, 신체 비율, 신장, 체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오레지나, 2005).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격 요인에서 곧은 척추, 근육의 형태, 턴 아웃, 발등의 굴곡 정도, 곧고 긴 사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주현, 2007), 신체 조건으로서 신체의 전체적인 비율, 상, 하지의 길이, 두상 크기를 보며, 신체 형태에서는 마른 체형, 다리, 발등, 척추 등의 모양, 체질을 세부적인 요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2).

체력은 형태와 기능, 정신을 포함하여 신체가 지닌 모든 성질의 총합으로 무용 체력은 미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등을 의미한다(오레지나, 2005). 체력 요인은 무용의 기술적인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용수행 과정에서 유연성, 평형성, 도약력, 지구력 등은 우아한 분위기와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동작을 수행하는데 많은 관련이 있으며, 세부적인 요인에서 유연성은 동작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 폭넓고 미학적인 움직임의 가능하게 하며, 중력을 뛰어넘는 것 같은 도약력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자아내고 춤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조주현, 2007).

둘째, 전문가들은 수행 영역 중 무용수행 영역에서는 관객 소통능력, 무대 존재감, 응용력이 중요하며, 신체지능 영역에서는 조화력(수행 요소 간 협응), 해석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은 춤을 추는 주체와 보는 사람과의 호흡의 일치로 상호 몰입되어 무용수의 예술세계와 미학적 능력이 전달되고 표현되는 공연예술이다(신혜숙, 손주희, 2008). 무용수행 영역에서 강조하는 관객 소통능력과 무대 존재감은 공연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무용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수행된 FGI면담 내용 중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능력을 통해 많은 무대 경험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더욱 완벽한 무용수행을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교육과정이 아닌 영재교육원의 교육 시스템에서 세계 유수의 대회에 출전하고 큰 무대를 경험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무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되어 있던 무용영재성을 더욱 발휘하고 우수한 무용수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체지능 영역은 일반 영재와는 다른 무용영재에게서 나타나는 역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영재의 인지 요인으로 무용 이해력, 창의력, 암기력(조경아, 유진, 2006), 발레 지능의 세부요인으로 이해력, 창의력, 기억력, 분석력(조주현, 2007), 무용지능으로 표현력, 리듬감, 창의성, 동작습득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황명자, 2012).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필요한 신체지능 영역에서의 조화력은 무용의 기술적인 부분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와 함께 표현력이 발현되면서 무용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석력은 자신이 추는 춤에 내재된 의미와 전달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무용에 대한 각 요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하여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인 표현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전에 수행된 FGI면담에서 신체지능으로서 조화력과 해석력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에게 나타나는 고도의 무용지능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능력을 무수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세계적인 무용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심리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동기, 애착 및 열정, 집중력을 상위수준 영재에게 필요한 심리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동기는 무용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으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조주현, 2007). 심리학에서 동기는 다차원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FGI면담에 참여한 상위수준 영재 출신 예술가들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용이 재미있다’, ‘스스로 연습한다’ 등의 표현은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동기는 내적 동기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동기는 선행연구(유진, 조경아, 2006; 윤서진, 2022; 조주현, 2007;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2)에서 무용영재성의 대표적인 심리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열정은 춤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의미하며(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2) 본 연구에서 수행한 FGI면담에서 무용영재 지도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무용영재와 비교하였을 때 상위수준의 무용영재들이 무용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더 열정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열정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오레지나, 2005; 이진효, 이지연, 김현남, 2011;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조주현, 2007;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황명자, 2012)에서 무용영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심리적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무용학습과 지속적인 연습, 탁월한 수행의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유진, 조경아, 2006).

마지막으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심리 역량으로서 집중력은 높은 수준이 되면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최고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이진효, 이지연, 김현남, 2011). 무용영재들은 일반 아동과 비교했을 때 무용학습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집중과 몰입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황명자, 2012). 본 연구에서 FGI면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력을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심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리 역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무용수행에 대해 높은 집중

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집중력으로 인해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되고 최고의 무용수행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집중력은 최고의 무용수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유진, 조경아, 2006; 윤서진, 2022; 이진효, 이지연, 오유진, 2012;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조주현, 2007; 황명자, 2012)에서도 필수적인 심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환경 영역에서는 지도자의 전문 역량, 국가나 소속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 지도자의 지지, 교류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FGI면담에서 전문가들은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무용수행 능력과 노력,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은 Renzulli(1978)가 영재를 평균 이상의 지능, 과제에 대한 집착력, 창의성 등의 선천적인 능력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개인으로 정의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Bloom(1985)은 영재의 재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코치 등으로부터 받는 지도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무용영재 분야에서도 무용영재의 부모나 가정환경, 지도자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과 지지, 뛰어난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도 역량과 좋은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조주현, 2007) 환경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무용영재성은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영재성의 발현 여부가 결정되므로 잠재된 영재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기반으로 무용영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황명자, 2012).

나.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요구도 분석

1) 신체(체격) 영역

신체(체격)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고관절 가동 범위 4.35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턴아웃, 발의 형태, 고관절 가동 범위 4.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발의 형태와 신체비율이 평균 차이 -.700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발의 형태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체격)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899로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86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9>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신체(체격) 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곧고 긴 근육	4.05	.759	4.65	.745	-.600	-5.339	.000**	2.79	4
② 턴 아웃	4.20	.616	4.80	.410	-.600	-5.339	.000**	2.88	3
③ 발의 형태(포인트)	4.10	.641	4.80	.410	-.700	-5.480	.000**	3.36	1
④ 고관절 가동 범위	4.35	.671	4.80	.410	-.450	-3.943	.001**	2.16	6
⑤ 신체비율	4.00	.858	4.70	.733	-.700	-4.765	.000**	3.29	2
⑥ 큰 키	3.55	.887	4.05	.945	-.500	-3.684	.002**	2.03	7
⑦ 유연한 관절	4.15	.745	4.70	.657	-.550	-4.819	.000**	2.59	5

2) 신체(체력) 영역

신체(체력)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순발력(민첩성) 4.40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순발력(민첩성)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지구력이 평균 차이 -1.250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근지구력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회전력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체력)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892으로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925으로 매우 높음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0〉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신체적(체력) 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근지구력	3.50	.688	4.75	.444	-1.250	-7.109	.000**	5.94	1
② 회전력	3.85	.745	4.85	.366	-1.000	-5.627	.000**	4.85	2
③ 도약력(점프력)	4.00	.649	4.80	.410	-.800	-5.812	.000**	3.84	3
④ 유연성	4.20	.616	4.80	.410	-.600	-4.485	.000**	2.88	5
⑤ 순발력(민첩성)	4.40	.598	5.00	.000	-.600	-4.485	.000**	3.00	4

3) 수행(무용수행) 영역

수행(무용수행)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음악성 4.40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음악성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즉흥능력, 응용력이 평균 차이 -1.350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응용력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즉흥능력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무용수행)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871으로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899으로 높음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1〉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무용수행 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관객 소통능력 (커뮤니케이션)	3.50	.688	4.75	.444	-1.250	-7.109	.000**	5.94	3
② 무대 존재감 (무대 장악력)	3.85	.745	4.85	.366	-1.000	-5.627	.000**	4.85	5
③ 연기력	4.00	.649	4.80	.410	-.800	-5.812	.000**	3.84	7
④ 즉흥능력	3.30	.865	4.65	.587	-1.350	-5.542	.000	6.28	2
⑤ 음악성	4.40	.598	5.00	.000	-.600	-4.485	.000**	3.00	8
⑥ 동작 분석력	3.90	.641	4.75	.444	-.850	-5.101	.000	4.04	6
⑦ 무용 창의력	3.50	.946	4.60	.598	-1.100	-5.772	.000	5.06	4
⑧ 응용력	3.50	.688	4.85	.489	-1.350	-8.102	.000	6.55	1

4) 수행(신체지능) 영역

수행(신체지능)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조화력 4.20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조화력, 해석력 4.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석력이 평균 차이 -1.000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해석력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작이해력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신체지능)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906으로 매우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784으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2>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신체지능 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조화력 (수행 요소 간 협응)	4.20	.616	4.95	.224	-.750	-5.252	.000	3.71	5
② 동작이해력	3.95	.826	4.85	.366	-.900	-4.723	.000	4.37	2
③ 동작습득력	4.00	.858	4.85	.366	-.850	-4.344	.000	4.12	3
④ 동작 재현능력 (모방능력)	4.00	.795	4.80	.523	-.800	-4.000	.001	3.84	4
⑤ 해석력	3.95	.826	4.95	.224	-1.000	-4.873	.000	4.95	1

5) 심리 영역

심리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애착과 열정, 집중력 4.45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5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안조절능력과 대담함 평균 차이 .8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불안조절능력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담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917으로 매우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771으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심리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동기(무용에 대한 강한 의지, 적극적인 참여도)	4.45	.686	5.00	.000	-.550	-3.584	.002**	2.75	6
② 애착, 열정	4.45	.686	4.95	.224	-.500	-3.249	.004**	2.48	8
③ 과제 집착력	4.20	.894	4.85	.489	-.650	-3.577	.002**	3.15	3
④ 자기통제력	4.20	.768	4.80	.523	-.600	-4.485	.000**	2.88	5
⑤ 집중력	4.45	.686	4.90	.447	-.450	-3.327	.004**	2.21	9
⑥ 불안조절능력	3.75	.786	4.55	.686	-.800	-5.141	.000**	3.64	1
⑦ 동료 간 경쟁심	3.55	.686	4.20	.834	-.650	-3.577	.002**	2.73	7
⑧ 대담함	3.70	.865	4.50	.827	-.800	-4.000	.001**	3.60	2
⑨ 자신감	4.00	.858	4.65	.587	-.650	-3.577	.002**	3.02	4

6) 환경 영역

환경 영역에 대한 일반영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반영재에서 지도자의 전문 역량 4.5점, 상위수준 무용영재 지도자의 전문역량,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 4.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준별 교육(학제별(초 1, 초2 등)이 아닌 레벨별)이 평균 차이 .75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수준별 교육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국가 및 기관의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통계적 유의를 살펴본 결과 일반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947으로 매우 높음, 상위수준 무용영재 필요수준 신뢰도의 값이 0.723으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하위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1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환경영역	일반영재		상위수준 무용영재		차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t	p-value	요구도	요구도 순위
① 수준별 교육	4.10	.912	4.85	.489	- .750	-3.290	.004**	3.64	1
② 교육환경(쾌적한 공간, 연습/체력운동 공간 등)	4.00	.973	4.60	.681	-.600	-3.040	.007**	2.76	4
③ 지도자의 열정	4.20	.951	4.70	.657	-.500	-2.517	.021*	2.35	6
④ 지도자의 지지 및 교류	4.45	.887	4.85	.366	-.400	-2.027	.057	1.94	9
⑤ 지도자의 전문 역량	4.50	.889	4.95	.224	-.450	-2.269	.035*	2.23	7
⑥ 무대 경험	4.10	.788	4.65	.587	-.550	-3.240	.004**	2.56	5
⑦ 소속학교의 (영재교육에 대한) 지지	3.95	.999	4.65	.489	-.700	-3.036	.007**	3.26	3
⑧ 부모 및 가정의 지지	4.40	.883	4.85	.366	-.450	-2.269	.035*	2.18	8
⑨ 국가 및 기관의 정책 및 예산지원	4.25	.910	4.95	.224	-.700	-3.390	.003**	3.47	2

7)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요구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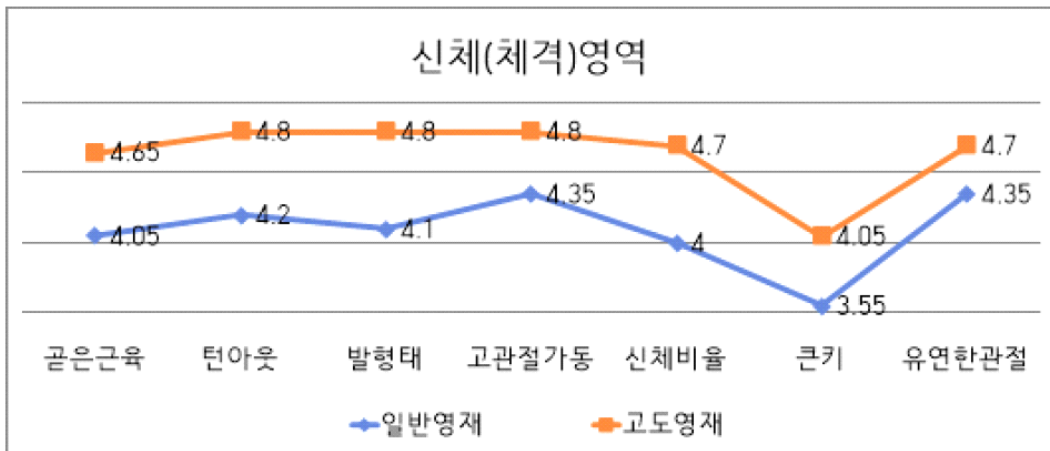
상위수준 무용영재와 일반영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 정도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모든 영역은 높음 이상의 신뢰수준(수행영역 중 신체지능, 심리영역, 환경영역은 매우 높음)이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체격		수행		심리		환경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구성요인	순위
근지구력	1	응용력	1	불안조절능력	1	수준별교육	1
포인트	1	해석력	1	대담함	2	국가의지원	2
신체비율	2	즉흥능력	2	과제집착력	3	학교의지지	3
회전력	2	동작이해력	2				
턴아웃	3	관객소통능력	3				

[그림 III-2]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요구도 분석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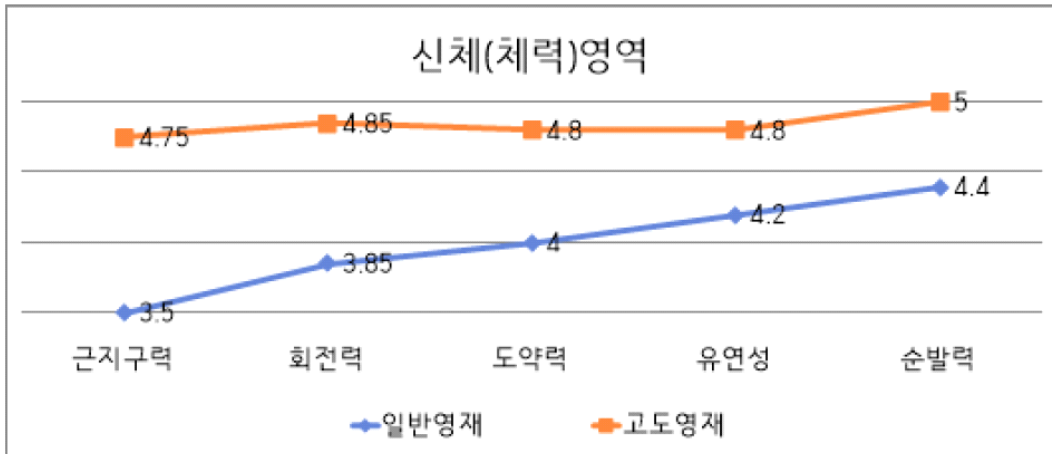
첫째, 신체영역 중 체격에서는 발의 형태와 신체 비율, 체력에서는 근지구력과 회전력에서 높은 요구로 나타났다. 우선 체격은 신체비율과 발의 형태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는데, 선행연구(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이진효, 2010, 2011, 2012, 유진, 조경아, 2006 등)에서도 신체비율과 발의 형태(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본 연구결과를 입증하였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신체비율과 발의 형태의 요구도가 높은 이유는 이상적인 체격조건은 무용동작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체비율은 두상이 작고 팔/다리가 긴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동작의 가동범위를 확장시키고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관객의 미적 감각을 자극시킨다(조주현, 2008). 또한 발의 형태는 발등이 높고 포인트가 잘되기 때문에 신체의 곡선이 발끝까지 연결되어 동작의 예술적 완성도를 가중시킨다.

조경아(2006) 역시 체격은 무용동작의 심미적 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재능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신정희(2000)는 발레에서 요구되는 신체라인과 포즈는 적합한 뼈의 구조에서 나온다고 언급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격)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그 다음 신체영역 중 체력은 근지구력과 회전력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무용동작을 수행할 때 근지구력과 회전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무용수의 체력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김재호와 이윤경, 1997) 우수무용수의 체력요인은 유연성, 근지구력, 회전력, 평형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적 동작수행을 위한 체력요인으로서는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회전력 등이 도출되어(김기웅 외, 2004)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근지구력과 회전력의 요구도가 높은 이유는 근육의 강력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재빠른 동작 즉, 높고 멀리 뛰거나 재빨리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활발한 움직임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찬호, 1995). 특히 체중의 전부를 발끝에 의지하는 발레와 같은 장르의 무용수들은 발목과 발은 가용범위를 넘어선 자세와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하기 때문에(이정필, 김장렬과 이경태, 2008) 고난이도의 무용동작을 수행하는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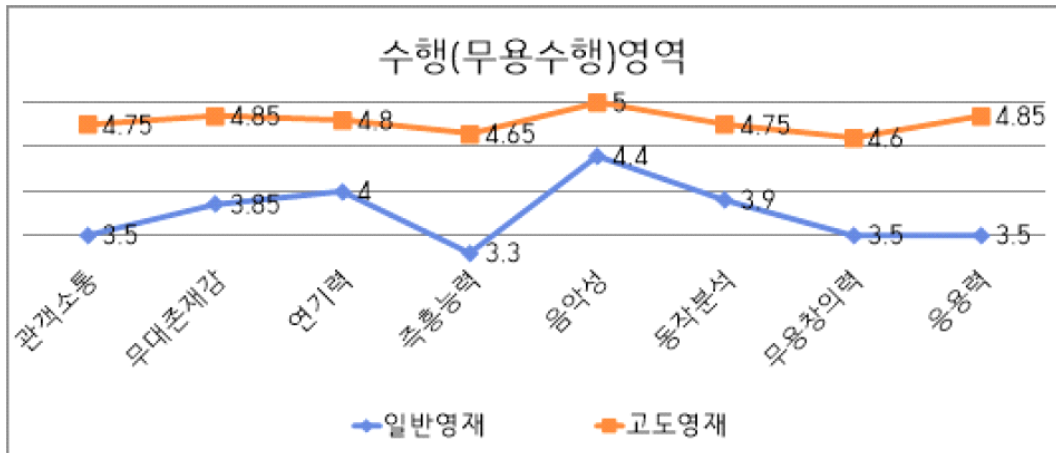


[그림 III-4]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신체(체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둘째, 수행영역은 인식수준 조사와 동일하게 무용수행에서는 응용력, 관객소통 능력, 신체지능은 해석력, 동작 이해력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무용수행은 창의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범주화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무용수행으로 개념화하였다. 무용수행 중 응용력은 기존의 무용동작을 다른 동작에 접목시키거나 새로운 예술에 적용 또는 융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응용력 요인이 높은 요구도로 도출된 이유는 응용력은 무용동작이나 작품을 창작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이며(유진, 조정아, 2006), 그 능력이 다양할수록 동작 뿐 만 아니라 작품과 캐릭터를 고안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고도의 테크닉을 넘어 자신만의 테크닉을 구사하고 그 느낌을 자유자재로 표현 및 응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이와 같은 요구도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은 관객소통능력으로 무대 위에서 무용수와 관객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는(이진효, 이진희, 박현정이다, 2011) 동작전달능력의 세부요소로 관객과의 소통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무용영재는 감정표현이 뛰어나 관객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크고 자신의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 및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큰 공연과 경연으로 인해 다양한 관객을 마주한다. 그때마다 보이는 무용기량과 교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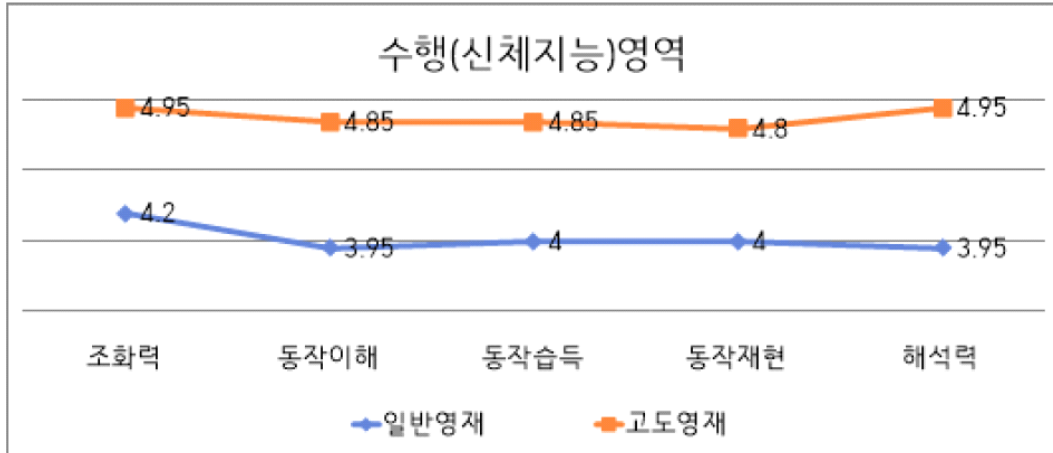
는 감정의 폭이 다를지라도 무용수만의 에너지, 관객을 끌어들이는 자신만의 매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무용가가 움직임 없는 정지상태의 포즈나 작은 동작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주현, 2008).



[그림 III-5]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무용수행)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그 다음의 신체지능 중 해석력과 동작이해력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는데 선행연구서도 작품이해력(유진과 조정아, 2006)과 발레지능(조주현, 2008), 동작수행능력(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요인의 세부요인에서 해석력과 이해력이 도출되었다. 해석력과 동작 이해력은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신의 무용능력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지적능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용에 대해 이해도가 낮으면 역할 이행이나 학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품을 빨리 이해하고 작품의 동작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은 무용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인지능력이기 때문이다(조정아, 2006). 특히 인지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무용수행 결과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력과 동작 이해력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라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식정보와 고난도의 기술을 쌓아간다고만 해서 발레영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정보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배치시키는가에 대한 높은 지적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조주현, 2008). 따라서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높은 수준의 신체지능을 통해 자신만의 무용스타일로 체화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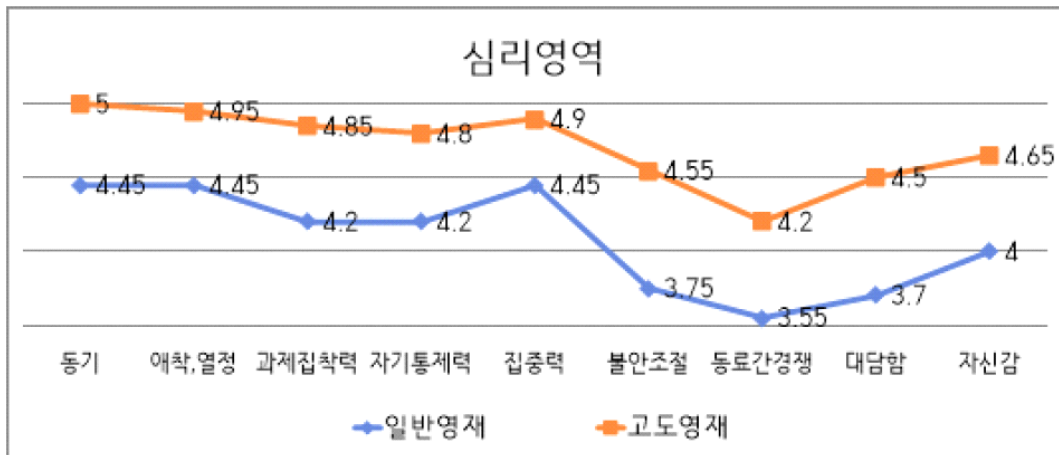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I-6]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수행(신체지능)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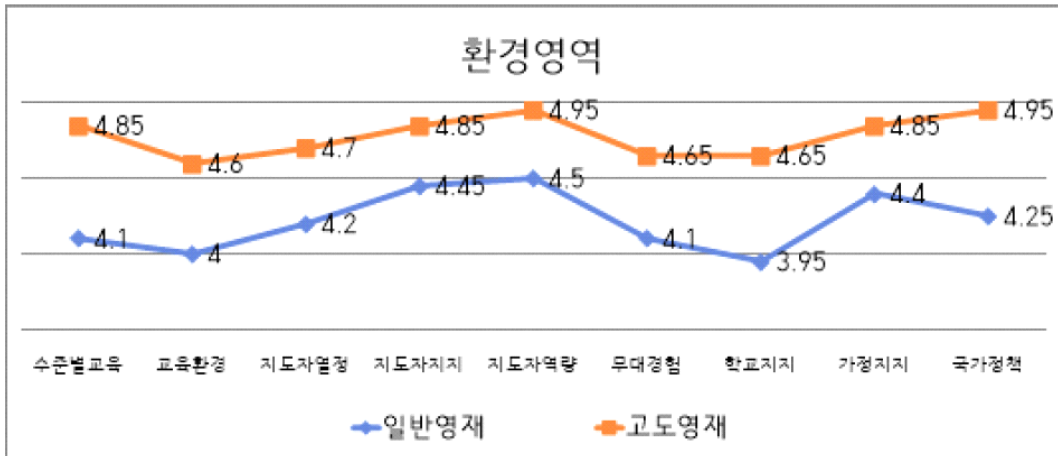
셋째, 심리영역의 인식수준 조사에서는 동기, 애착이 높게 나타났지만, 요구조사에서는 불안조절능력과 대담함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불안조절 능력은 동작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여 성공적인 동작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행연구에서는(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집중력의 세부요인으로 감정조절 요인을 포함시켜 무용영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불안조절능력을 대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대담함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능력들을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써(조영주, 정유영과 이강현, 2010), 조경아(2008)는 무용재능 요인 중 자기통제력의 세부요인으로 대담함을 포함시키면서 무용영재는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하는 성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불안조절능력과 대담함의 요구도가 높은 이유는 잦은 공연 또는 경연 상황에서 긍정적인 수행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따른 불안감과 압박감이 크고,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부담감은 어린 학생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는 스스로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과 불안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대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그림 III-7]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심리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넷째, 환경영역의 인식수준 조사에서는 지도자의 전문 역량 및 지도자와의 관계 등이 높게 나타났지만, 요구조사에서는 학제별(초등, 중등 등)이 아닌 수준별 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오레지나, 2008; 이진호, 2017) 무용영재교육은 무용영재의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무용영재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이진호, 2017)를 살펴보면 3가지 수준별(기초단계-심화단계-확장단계)단계로 분류하여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적합한 교육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단계는 기초적인 무용동작에 대한 원리 등을 이해하는 단계이고 심화단계는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움직임 수행단계, 마지막 확장단계는 타 분야(수학, 과학 등) 및 타 예술(음악, 미술, 연극 등)과 연계·통합을 목적으로 한 공유단계이다. 선행연구에서 수준별 교육의 시급함을 언급했듯이 추후 상위수준 무용영재교육은 대상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고 단계에 맞는 교육기준을 선택하여 수준별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III-8]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중 환경 영역 요구도 분석 결과

다. 상위수준 무용영재 특성의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종합

본 조사는 선행연구와 FGI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요인들에 대해 현장의 인식과 요구도를 알아보고, 조사를 통해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순위와 가중치가 도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면담 구성 체계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무용영재 교육자 및 연구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영역 중 턴아웃과 발의 형태, 신체비율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조주현, 2007)와 같이 체격 요인에서 곧은 척추, 근육의 형태, 턴 아웃, 발등의 굴곡 정도, 곧고 긴 사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신체의 전체적인 비율 역시 중요 요인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FGI 의견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수행 영역 중 조화력, 해석력, 관객소통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무용은 춤을 추는 주체와 보는 사람과의 호흡의 일치로 상호 몰입하여 무용수의 예술세계와 미학적 능력이 전달되고 표현되는 공연예술(신혜숙, 손주희, 2008)이다. 따라서 수행 영역에서 강조하는 관객 소통능력은 공연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무용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FGI에서도 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무용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향상시켜 더욱

완벽한 무용수행을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화력은 무용의 기술적인 부분이 점차 고도화되며 이와 함께 무용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며, 해석력은 무용의 내재 된 의미와 전달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각 요소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하여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인 표현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FGI에서 신체지능으로서 조화력과 해석력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에게 나타나는 고도의 무용지능이며, 이러한 능력을 무수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세계적인 무용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 영역 중 동기, 열정, 과제집착, 집중, 몰입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동기는 무용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으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조주현, 2007)하며, 열정은 춤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의미(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2)한다. FGI에서도 일반 무용영재와 비교하였을 때 상위수준의 무용영재들이 무용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더 열정적이었다고 진술되었는데,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심리 역량으로서 집중력은 높은 수준이 되면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최고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과제집착, 집중력 또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심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높은 수준의 집중력으로 인해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되고 최고의 무용수행을 성취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넷째, 환경 영역 중 지도자의 역량과 지지, 국가의 지원, 수준별 교육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FGI에서 전문가들은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무용수행 능력과 열정,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영재의 재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교사, 코치 등으로부터 받는 지도와 지원에 의해 결정(Bloom, 1985)되며, 무용영재의 가정환경, 지도자의 정서적 지지, 뛰어난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도 역량과 좋은 교육환경이 필요하다(조주현, 2007)고 강조된 바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적은 없으나 국가의 물리적,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FGI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 무용영재의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오레지나, 2008; 이진호, 2017)에서와 같이 FGI에서도 학령(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등)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수준(레벨)에 따른 교육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되었으며, 이 역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환경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강조된 것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에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인식과 일반영재와 비교한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 정도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의 구성 체계로 활용할 것이며,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IV.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과정 탐색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발현 탐색을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Bonger, Littig, Menz, 2009), 우수한 전문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먼저 연구진이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따라 표집대상(15인)의 두 배수(30인)에 해당하는 교육자와 무용영재 출신 성취예술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력 30년 이상의 대학교수 2인이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에 따라 교육자 5인과 예술가 10인을 최종 선정하였다(Goetz, LeCompte, 1984; 임수진, 2015).

선정된 참여자는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육분야 전문가 5명과 무용영재 출신 성취 예술가 10인이다. 교육분야 전문가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경력 20년 이상 2인, 15년 이상 3인으로 구성되었다. 무용영재 출신 성취예술가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주역, 미국 보스턴 발레단 주역, 국립발레단 주역을 비롯해 스페인 국립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다.

더불어 무용분야에서 경험적으로 이야기되는 외형 조건의 유전적 성질, 성장기 체중변화, 미용성형 및 시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무용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엘리트 체육 전문 정형외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 소아 전문 한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참여자에 대한 기초자료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과정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이름	전문분야
교육자 (5명)	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 경력 22년 전) 워싱턴 발레단 주역무용수(무용수경력 31년)
	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진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육 경력 20년 이상
교육자 (5명)	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진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육 경력 15년 이상
	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진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육 경력 15년 이상
	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교수진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육 경력 15년 이상
무용영재출신 예술가 (10명)	김○○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주역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채○○	미국 보스턴발레단 주역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이○○	미국 보스턴발레단 드미슬리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학
	박○○	스페인 국립발레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한○○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학
	권○○	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이○○	국립발레단 주역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김○○	국립발레단 주역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박○○	국립발레단 주역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수학
	정○○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학
의학분야 전문가 (5명)	정○○	정형외과 전문의 상무 야구단 주치의 및 스포츠손상 환자 전문가
	이○○	정형외과 전문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주치의
	심○○	소아과 전문의
	최○○	한방소아과 전문의
	방○○	무용의학 전문가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

나. 연구내용 수집

상위수준 무용영재 발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self-reflection) 연구 목적과 내용, 주요 질문에 대해 면담 전 전달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모두 1:1 개별 면담과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개별 면담의 경우 각 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추가 질문 내용이 있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룹 면담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 까지 진행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제2의 연구자로 여겨지는바 의미 있는 진술을 듣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잘 표현할 의사가 있는지를 면담 전 확인하였다. 연구 주제와 목적, 면담 방법, 소요시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연구 진행 중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윤수진, 2021). 이에 대해 참여 전문가 전원이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최종 참여를 결정하였다.

다. 연구내용 분석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에서는 Moustakas, Colaizzi, Giorgi, Van Manen 등에 의해 발전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만 공통된 흐름은 인간의 주관적 세계로 육박하여 그들이 공유한 생활 세계에서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다(김서영, 201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기술을 충실히 하여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한 현상을 드러내고자 한 심리학자 Giorgi의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Giorgi 현상학적 연구의 핵심은 개인들의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경험을 기술하고 또 다음 작업으로 개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구조와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다(이근무, 이혁구, 2019).

먼저 연구진은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 전문가들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사전에 무용과 무용영재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질의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 관련성을 포함하며 강한 공유, 신뢰, 상호성이 존재함을 뜻하므로(Creswell, 2013), 면담 참여자들과의 라포형성은 연구자

들이 본인의 경험을 거짓 없이 진솔하게 하도록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체험(lived experience)을 전체적으로 면담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Husserl의 판단중지(epoche)의 절차에 따라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괄호치기(bracketing)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온전히 초점(윤수진, 2021)을 두었다. 참여자의 진술이 이해가 안 가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고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둘째, 면담에서 이루어진 녹음 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상황적인 경험을 기술하였다.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나열하여 주제와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구성하였다.

셋째, 드러난 주제가 원 자료에 의거하여 추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진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검토하였고, 연구 참여 전문가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 전문가에게서 나타난 공통된 주제를 구성하고 그 결과들을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철저한 기술로 통합하였다.

2. 연구결과

가. 신체영역

무용은 신체를 소재로 표현해 내야 하므로 무용에서의 신체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육완순, 1988; 김리나 외, 2011). 오레지나(2005), 조주현(2007a, 2007b), 이진효 외(201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17, 2018)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경우에도 신체적인 조건 즉, 팔·다리 길이, 체형, 얼굴 크기 및 생김새, 관절 유연성 등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확실히 신체 조건이에요. 외형적인 조건, 구체적으로는 유연한 관절, 얼굴 크기, 팔다리 길이, 그리고 체형, 얼굴 생김새도 있죠. 신체 조건들이 눈에 띄는 아이들이 먼저 눈에 띄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전문가 임○○)

저는 좋은 체격이 첫 번째 같아요. 베이스죠 정말. 체격이 좋지 못하면 발레 영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교육전문가 심○○)

발레는 서양에서 출발한 예술이기 때문에 서구적인 체형이 더 알맞을 수밖에 없어요. 긴 팔과 다리, 작은 얼굴, 마른 몸, 튀어나온 발등 같은 몸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영재출신예술가 정○○)

1) 발란스가 맞는 몸

이처럼 신체조건은 무용영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에 적합한 몸을 이야기 할 때 키가 크고, 마른 몸을 예로 든다. 무용영재교육, 특히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외형에 대해 전문가들과 무용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각각의 요소가 뛰어나기 보다는 ‘밸런스가 맞는 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전체적인 신체 비율, 관절 유연성, 턴 아웃, 발등 유연성(포인트)를 보고 무용 영재를 선발해요. 하드웨어와 약간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조화력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선발되는 거죠. 키가 아주 크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키가 아주 작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비율, 그게 중요해요.

(교육전문가 조○○)

어린 시절부터 고도의 무용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실력은 이미 수준급입니다. 입학할 때부터 체형도 좋았겠죠. 그런데 이차 성징이 오면서 학생의 체형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찌서 빠지지 않거나 신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무용영재교육을 받기 어렵죠.

(교육전문가 김○○)

보통은 6학년 때부터 체격에 영향을 상당히 받기 시작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이차 성징의 영향이 크죠. (키) 성장이 더뎠거나, 근육이 두꺼워 진다거나, 살이 많이 찐다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두상의 크기가 커지거나, 허리랑 대퇴골 길이가 길어져서 신체 비율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체형은 학생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큰 결함이 있으면 탈락하는 거죠.

(교육전문가 심○○)

저는 키가 큰 편도 아니고, 팔과 다리가 긴 편도 아니어서 늘 신체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고관절이 유연하고, 다리 힘(근력)이 좋은거? 발레단에 가고 나서 제가 키는 조금 작아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재출신예술가 박○○)

여학생의 경우 신체 비율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남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학생과의 듀엣을 위해 신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학생이 키가 큰 여학생(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170cm정도)과 듀엣을 하려면 이들보다 훨씬 큰 신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학생들의 키는 중요해요. 키 작은 남학생들은 파트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큰 남학생이 귀해요. 큰 여학생과 파드되(듀엣)를 하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하죠. 여학생들은 키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학생인 경우에도 비율이 좋고, 테크닉이 단단하다면 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육전문가 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키가 생각보다 안 크다든가 그런 변수가 있죠. 남학생들의 키는 중요해요. 여학생들은 키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교육전문가 김○○)

2) 2차성징, 사춘기 등의 급격한 신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적절한 식습관과 올바른 발레 자세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의 무용영재 선발 시기는 만 10세~만 11세로 제한된다. 이는 골격이 완성되기 이전의 나이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무용영재로서의 이상적인 체격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전문 의료인에 의한 건강검사 및 신체검사는 물론 부모의 체격조건까지도 무용영재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큰 키, 작고 아름다운 얼굴, 마른 몸(체질)과 같이 뛰어난 외형을 타고난 사람만 무용영재에서 나아가 상위수준 무용영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용의학 전문가, 엘리트 체육 전문 정형외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 소아 전문 한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타고난 체형, 체격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평균신장이 180cm가 넘는 국가, 민족별 외형 차이, 가족성 저신장증 등을 보면 키는 대체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개개인이 처한 자연적, 경제적 환경, 영양 상태나 유전자, 호르몬 이상 등의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키가 크다고 해서 자녀의 키가 100% 크다고 혹은 작다고 해서 작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성장기에 영양섭취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신체활동이 부족했거나, 과하거나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정형외과전문의 정○○)

동일한 성과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생물학적 성숙 수준은 개인별, 환경별 차이가 크므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나(Armstrong N, Welsman JR, Kirby BJ, 1999), 이차성징 발현 전후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체중변화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여학생의 경우 2차 성장의 대표적 외형변화가 가슴,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영양결핍이나 질환이 없는 정상적 경우라면 급격히 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조절하고 상당 시간 연습을 통해 지방으로 축적해야 할 영양소를 소모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마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겠죠. (무용의학전문가 방○○)

정상체중인 부모의 자녀는 10% 이하, 둘 다 비만인 부모의 자녀는 80% 이상이 비만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비만이라고 꼭 비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평소 부모의 식습관이나 생활양식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비만이 유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이라면 누구나 비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전문의 심○○)

부모 중 한 사람이 비만이거나, 모두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식습관, 수면 시간 등 후천적인 환경 영향이 자녀에게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후천적으로 쌓은 것들-음식, 기거, 생활 습관 및 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체질이 이를 설명해줍니다. 골자는 부모로 인한 유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비만을 방지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소아전문한의사 최○○)

전문가들은 무용이 아니더라도 신체훈련을 하는 어린나이의 학생들은 부상을 예방하고, 무리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여 성장판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올바른 연습 방법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린 나이부터 많은 (고강도 체력이 요구되는) 훈련을 한 경우 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연습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는 경우 성장판에 손상을 주어 신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린 채로 훈련하는 빙상종목들은 무릎 관절 부상이 많고, 구기종목 같은 경우 어깨 부상이 많은 것과 같이 예상되는 부상을 방지하는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리듬체조, 피겨, 예술의 경우 부상을 겪을 때 의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 어떤 방법으로 예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전문의 정○○)

개인별로 성장의 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시기를 정할 수는 없으나 적절한 훈련강도는 있겠습니다. 매일 일정시간 연습을 하는 경우 무리가 없다면 지속해도 됩니다. 다만 적절하게 휴식하는 법을 반드시 지도받아야 합니다. 과거 엘리트 체육에서는 한계 없이 훈련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었죠.

(정형외과전문의 이○○)

3) ‘예쁜’ 외모보다 발레 분위기 만들기

무용전공생들은 무대에서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구가 강하다. 가늘고 긴 선을 강조하는 무용교육현장에서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거식증 등의 섭식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나경아, 정운경, 2014; 정운경, 2016; 나경아, 박인경, 정운경, 2018). 무용전공생은 일반고교생에 비해 성형 경험 비율이 높고, 선생님의 권유로 성형 및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윤수미, 정다운, 정주희, 2013)결과처럼 외모를 가꾸는 것이 곧 실력을 가꾸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위수준 무용영재들은 굵은 다이어트,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에 의지하기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연습과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굵어서 살을 빼게 하고, 성형수술 받게 하고 이런 것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영재는 그러면 안돼요. 연습을 통해서 발레하는 몸이 되고, 인형같이 생기지 않아도 연기력으로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야 해요.

(교육전문가 유○○)

오히려 연습으로 빳어진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게요.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하면 어깨가 솟아 보이고, 다리가 두꺼워질 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고, 체력을 키우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교육전문가 심○○)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외모적으로 엄청난 관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식욕억제제를 먹는다, 식사 대신 영양주사를 맞는다,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성형 시술을 많이 한다, 어깨나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다, 미용관리를 많이 받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은 그런데 무뎌요. 보톡스 맞으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건 다 일시적

이고, 진짜 제 몸, 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과 운동뿐이에요.

(영재출신예술가 채○○)

성형수술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광, 즉 눈빛입니다. 성형의 과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을 통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눈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정신력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 유명 발레리나 누구, 이런 분들 조각처럼 예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죠. 어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 예술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형수술, 시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름다운 이유가 유명 연예인처럼 예뻐서가 아니고, 실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용의학전문가 방○○)

무용분야에서 외모도 실력의 일부라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위수준 무용영재들은 굶는 다이어트, 성형수술, 미용시술 등에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 역시 어린 나이에 미용성형과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연습으로 몸을 빚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 무용영재 출신 예술가들도 외모적으로 엄청난 관리를 할 것이라는 편견을 알고 있으나, 성장호르몬이나 신체 보톡스같은 부작용으로는 절대 신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 전문가는 독보적인 수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하는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력, 예술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나. 수행영역

무용에서 수행영역은 각종 내·외적 자극과 정보를 미적 동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오레지나 외, 2005). 이 영역은 신체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의 무용영재 판별 시 수행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무용영재를 정의할 때 ‘무용동작을 독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김기웅 외, 2003; 오레지나, 2005)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무용에 있

어 수행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

교육 전문가들은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발레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용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다르게 중간에 합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자세나 동작 등에서 잘못된 학습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몸에 밴 습관들을 고쳐나가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도 3학년이랑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가 부족한 경우예요. 저희는 (레벨 낮춰서) 내려보내요. 몸을 어떻게 세우는지, 몸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 자세부터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해요. (이런 기초교육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은 가야 돼요. 파운데이션 교육을 받고 다시 원래 레벨로 돌아오는 거죠. (교육전문가 조○○)

고학년이지만 유연성, 비율을 보고 뽑아냈는데, 이상하게 배워 온 경우. 다 지워야 해요. 지워서 그걸 다시 또 그려야 해요. 세게 그려진 데가 있으면 지우다 지우다 다 그게 남아요. 나중에 안 고쳐지기도 하죠. (교육전문가 김○○)

2) 전체적으로 균형있고 조화로운 예술성

특출난 한 두가지 보다 ‘전체적으로 9점 이상’

상위수준의 무용영재들은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상당수준 갖추고 있다. 선행연구(조주현, 2007)에서는 무용가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수용하고 반응하여 제화하는 능력, 느낌, 음악성, 연기력, 무대 예술적 기질이 필수적이라 하였다. 아래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이런 각각의 요인들 중 한 두 가지의 요인이 특출난 것 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9점 이상’인, 조화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묵묵히 연습만 하는 아이인데, 음악이 나오면 어느 순간 백조가 되고 어느 순간 에스메렐다가 됩니다. 음악, 연기능력 같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기력이나 음악 같은 춤 외의 요소들까지도 자기화해서 자기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연출가라고 할 수 있죠. (교육전문가 조○○)

테크닉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술이 빠지면 안 돼요.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이니까, 아름답게 보여야죠. 다시 보고 싶어야 하고요. 어떤 발레리나의 지젤을 보고나면 키트리, 흑조도 보고싶어야 진짜 발레리나라고 해요. 무용영재들은 그걸 배워야 하는 거죠. 영재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 다양한 장르를 알려주고, 어떻게 표출해 내는지 지켜봐요. 많이 어색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처음부터 뛰어난 학생도 있죠. 어떤 학생을 예를 들면, 보통 파드되는 남학생은 받쳐주고 돌려주고 들어주기를 하고, 여학생이 돌리고 돌려지고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여학생을 봐요. 근데 그날 파드되에서는 손을 내미는 남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선생님들 모두 ‘저 애는 예술가야’라고 했어요. 그런 예술성을 개발하기 위해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어떤 느낌을 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면서 배우죠. 어떤 거 하나가 특출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게 ……(후략)…… (교육전문가 유○○)

다양한 방면으로 뛰어난 영재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깊은 사고력과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영재라고 생각해요. 신체적인 능력, 음악성, 표현력, 공간 이해 능력같이 발레에서 중요한 능력들을 배워서 키울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영재출신예술가 이○○)

저는 아름다움을 몸으로, 모두가 공감 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채고, 표현해내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재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작)각도, 감동적인 표현 이런걸 단번에 해낼 수 있어야 해요. (영재출신예술가 한○○)

3) 수준 높은 무용수행을 위한 배움 욕구: 무용을 넘어서 인접 지식까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들은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둔다. 선행연구에서도(김기웅 외, 2004) 무용영재는 내재적인 이해력과 습득 능력, 동작을 자발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는 능력 등에서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과제를 빨리 이해하고 본인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하는 능력은 동작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새로운 과제를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무용 수행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인접 학문을 공부하며 자신의 내면을 보강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로 선발된 후 어릴 때부터 많은 작품을 접하게 되니까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작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 같아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때 교육받은 작품들과 방식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도 더 채워야 하는 부분이 뭘까 고민하고 있어요. 영재교육을 해주신 교수님께 안무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 음악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바로 음악 공부 하고 있어요. 연극도 보고, 클래스도 듣고요. 학교 다닐 때 이론수업도 일부러 많이 찾아 들었고요. 원작(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중략) 제가 선택한 거니 많아도 다 배워야죠. 사실 별로 많지도 않고요. (영재출신예술가 채○○)

영재교육을 받을 때 피아노 전공 영재들과 함께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템포로 춤추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날 음악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거 같아요. 스페인 플라멩고, 장죽 전통춤, 하와이 훌라 같은 다양한 장르를 제한 없이 배웠는데, 그게 제 표현성을 키워준 거 같고요. 저는 재미있어서 한 일들인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만들어나가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영재출신예술가 박○○)

무용단에서의 활동을 돌아보면, 즉흥이나 현대무용, 연기를 일찍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재교육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본기는 탄탄할 텐데 표현력을 더해주는 수업을 더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영재출신예술가 권○○)

신체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작품, 인물, 배경, 무대 구조 이런 걸 분석하고 자기 스타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많이 배워야죠. 많은 작품, 많은 장르, 많은 선생님, 많은 예술적 경험들,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영재출신예술가 이○○)

4) 수행의 목표는 공연: 다수의 무대 경험으로 쌓이는 수행력

무용수행의 목적은 공연이다(김기웅, 1999, 2012). 무대에 서는 경험은 영재 학생들로 하여금 관객과 공간,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강인한 마음과 동기부여를 불러온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총장 역시 2022년 11월 9일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술교육은 스튜디오나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와 무대까지 가는 과정이 산교육이고, 본질’이라고 하였다. 상당수의 예술영재 출신 예술가들을 배출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설립 초기 교수진들이 무대의 규모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공연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동기부여를 하고, 교수들이 무대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상위수준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비교적 다른 학생들에 정말 많은 무대 경험을 가지는데, 이 무대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힘들게 연습한 걸 무대에서 표출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나도 저기 서 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커리큘럼 자체가 콩쿠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무대 경험을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정기 공연을 보면 3일 동안 계속 무대에 오르는 프로 과정이잖아요. 특히 무대에 오르다보면 표현력이 정말 많이 늘어요. 표정이 하나도 없던 아이가 생글생글해졌어요. 정말 귀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교육전문가 심○○)

지금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교육원 출신 예술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원에서의 무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일반 콩쿠르 무대 말고는 공연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기 어려운 큰 무대를 경험하고 나니 학생들이 콩쿠르 나가서도 비교적 떨지 않죠. 혼자 짐 싸서 혼자 당차게 잘 다녀와요.

(교육전문가 유○○)

지금은 M발레단에서 주역을 맡고 있는 동료와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 동료와 함께 제가 선택되었다는 게 제겐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영재출신예술가 채○○)

일차적으로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은 것에 더해서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다 보니, 프로 무용수로의 경험이 단단히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해처럼 무대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고요.

(영재출신예술가 이○○)

예비학교에서 기초만이 아니라 무대에서 보이는 것까지 고려해서 배우면서 지금까지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죠.

(영재출신예술가 정○○)

이처럼 예술에서 공연은 교육 성과나 학생 개인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선행연구(조주현, 2007)에서는 발레 상황에서 요구되는 움직임과 감정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정서, 직관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관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무대 경험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에게 매우 중요한 배움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무대 경험을 통해 무대존재감, 무대장악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다. 심리영역

1) 노는 거 보다 발레가 더 좋아야 해: 열정과 애정

열정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상태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도달하려는 에너지이며(Templeton, 1994),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활력적으로 일에 매진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현기, 2004). 우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무용에 대한 열정 정도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인선, 김선일, 2009)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자기관리와 정신 연습을 하는 등 무용과 관련하여 남다른 열의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수한 전문무용수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열정에 대해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높은 수준의 영재라고 하면 가르쳐 봤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1년을 있다가 나가는 학생, 2년을 있다가 나가는 학생, 쪽 버티는 학생. 그거의 차이가 가르쳐보면 열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완벽한 아이가 들어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를(교육과정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교육했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온전하게 다 해내지 못하면 어차피 그게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교육전문가 심○○)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열정과 태도가 정말 바른 아이 같은 경우는 영재성을 발휘해요.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영재 안에서도 영재가 돼요. (교육전문가 김○○)

신체 비율, 체력, 예술성, 섬세한 감각같이 중요한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눈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아름다움을 알아채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건 교육을 받아서 된다고 보다는 진심으로 발레를 좋아하고, 빠져들어야 만들어 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영재출신예술가 한○○)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무용에 대한 열정 정도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인선, 김선일, 2009; 유진, 조경아, 2010)와 일치한다. 김인선과 김선일(2009)은 우수한 무용수들은 심리적으로 무용과 관련하여 남다른 열의와 열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진과 조경아(2010)는 열정에 대해 무용 연습과 공연의 상황에서 지칠 줄 모르는 힘의 원천이 되는 동기적 역할과 무용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의지와 노력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내적 동기이며 이러한 열정은 무용학습과 지속적인 연습, 탁월한 수행의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영재성을 키워가는 태도: 발레에 대한 몰입

또한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심리적 특성으로 집중력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유진, 조경아, 2006; 윤서진, 2022; 이진효, 이지연, 김현남, 2011; 이진효, 이지연, 오유진, 2012;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조주현,

2007; 황명자, 2012)에서도 몰입을 무용영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심리적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발레에 대한 몰입은 최고의 무용수행을 결정짓는 핵심적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 전문가들도 몰입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이라는 여학생은 여기 영재(교육과정)를 다 채우고, 대학교 졸업하고 외국 무용단으로 진출한 학생이에요. 애들은 선비라고 불려요. 목소리도 낮고 말도 거의 없고, 말투도 무뚝뚝하고,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고 할까. 아직도 기억나는게 제가 해외 콩쿠르에 같이 갔을 때 진짜 힘들었는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선생님 저 고기 먹어야 힘낼 거 같아요’ 이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춤을 출 때는 갑자기 키트리가 되고 갑자기 카르멘이 되고 갑자기 흑조가 되고 그래요. 평소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과 발레를 할 때 구현되는 거는 다르죠. 짧은 시간에 캐릭터에 몰입해 내는 특징.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건 그 역할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나와요.

한○○이라는 학생은 허허실실, 성실과는 거리가 먼 타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춤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높아요. 거기서 빛을 발했을 때 평소의 모습이랑 달라지는 거 같아요.

(교육전문가 유○○)

3) 과제집착력: 연습 시간보다 중요한 연습 목표 도달

영재성은 평균 이상의 능력과 창의성과 과제집착력으로 이루어지며(Renzulli, 1978), 예술영재성은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경진, 2012). 본 면담에 참여한 무용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와 상위수준 무용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수준 높은 무용수행에 도달하기 위해 부여된 과제에 대한 집착력을 상위수준 영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채○○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인)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아이. 어떤 동작을 보여주고 ‘리벌스’하면 가능한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밤 11시가 되어서도 집에 안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채○○의 발레에 대한 몰입감, 열정. 어른이 봐도 대단하죠.

(교육전문가 조○○)

특히 교강사들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수상 실적과 같은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상위수준 무용영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며, 체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잠재된 영재성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제집착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진술하였다.

가르쳐 봤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무용영재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과제집착력이라고 생각해요. 근성, 고치려는 열정이요. 완벽한 학생은 단 명도 없었어요. 채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고도의 무용영재교육이 투입됐을 때 학생이 온전하게 해내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과제집착력, 즉 열정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내요. 그러면 높은 수준의 무용영재가 되는 거죠. (교육전문가 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잖아요. 대부분 열정적일 것 같은데 중학교의 남학생들은 꽤나 게을러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싶기는 해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 자극을 하면서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되게 많을 때거든요. 한창 성장기니까. 적절히 잘 자극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하게 계속적으로 과제를 던져주는 거 그게 여기 교육 방법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픈 클래스도 있고, 중간에 공연이 크건 작건 많고, 쿵쿠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잘 계획해서 충분히 그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줘야죠. 무용에 계속 집착하고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교육전문가 심○○)

한○○이라고 지금은 A발레단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허허실실, 성실과는 거리가 먼 타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춤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높아요. 거기서 빛을 발했을 때 평소의 모습이랑 달라지는 거 같아요. (교육전문가 유○○)

혹독한 신체적인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수행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과제집착성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다양한 선행연구(오레지나, 2005; 윤서진, 2022;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조주현, 2007; 황명자, 2012)에서도 무용영재를 판별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되는 심리적 역

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요구되는 과제집착력은 오랜 시간 연습하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 무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끈질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무용영재로서 앞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잠재적 지표가 된다(조주현, 2007).

4) 인내하고 역량을 키우며 기다리고, 증명하는 과정 진학, 진로, 콩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상위수준 무용영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서 인내심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과 의지이다. 무용영재가 우수한 무용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내심은 학습 과정에서 혹독한 무용 훈련과 연습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이며, 무용수로서 자기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이진효, 이지연, 김현남, 201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는 인내심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이 도출되었다.

정신력, 집념을 가진 아이들이 고도의 무용영재성을 발현해 냅니다.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이 모두 영재는 아닙니다. ‘재능을 의심받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영재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1%의 재능을 의심받고 있고, (앞으로) 99%의 노력을 통해 고도의 무용영재성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집중력, 끈기가 (일반영재와는 다르게) 깊어야 하죠. (교육전문가 조○○)

발레는 참을 인(忍)을 백 번을 써도 또 써야 해요.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만 남는 거죠. 확실한 건 대학생이 되어도 영재 출신 아이들은 버텨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했던 학생 중에는 탈락한 학생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들은 정신력이 약한 부분이 좀 있죠. 살이 쪼다거나, 부상을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정신력이 강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발레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교육전문가 유○○)

예비학교(한국예술영재교육원 전신) 다닐 때 으스스한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낮에도 킁킁한 곳인데, 밤이면 더 킁킁해져요. 그래도 연습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남아서 하는 거예요. 하다보면 또 밤이고, 집에 가는 길은 무섭고. 다음날에는 일찍 가야지 하는데 연습하다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연습하는 거.

예비학교 때는 내가 내년에도 여기에 있기 위해서 연습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에 가기 위해, (특정) 콩쿠르에 입상하기 위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예술성과 수행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끝까지 해낼 수 없죠. (영재출신예술가 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것에 재미를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배우는 아이들보다 부족한 게 많으니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리니까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여쭙보고, 고치고, 여쭙보고, 고치고 반복하다 보니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중략)..... 콩쿨 나가서 상받고, 센터서는 거 저도 좋아하죠. 근데 그게 맹목적이면 안돼요. 내 실력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해요.

(영재출신예술가 박○○)

신체적인 장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신적인 힘이야 말로 더 큰 예술가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발레가 단순히 신체의 강점으로만 표현되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테크닉은 당연하고, 연기력, 음악적인 감각 같은 부분들도 연습하면 늘더라고요. 연습은 괴롭죠. 힘들고. 그래도 내 춤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습해야 해요. 이건 아무리 어려워도 무용수라면 똑같이 (연습)해야해요. 무용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억압, 불안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영재출신예술가 김○○)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판별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인내심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이진효, 이지연, 오유진, 2012; 조주현, 2007; 이진효, 이진희, 박현정, 2011;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황명자, 2012)에서도 필수적인 심리적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심층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처럼 인내심을 바탕으로 무용수행이 발전되는 모습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이전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연습에 매진한다면 무용에 대한 내적 동기가 향상되어 무용

수행을 지속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수준 무용영재들이 길고 힘든 연습 과정을 이겨내고 우수한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끈기 있게 버티는 정신적인 힘이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 역시 ‘인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최고 수준의 학생(무용수)에게도 인내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레단에 입단 할 때부터 주역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증명해 내는 법을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의 역할은 이 아이가 발레로 최고 수준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에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발레 세계에 적응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역을 맡았던 학생에게 일부러 군무 역할을 주는 거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증명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교육전문가 조○○)

학생이 못하는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무대에 서고, 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 보다는 힘들어하는 거, 하기 싫은 거도 줘야 해요.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요. 정규수업이 끝나고 7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12시까지 영재교육을 받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추가로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완전히 탈진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물론 더 연습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는 밤 12시가 되면 (영재교육원) 문을 닫으니까 할 수 없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완전히 발레에 쏟아 부은 아이들이 지금 유명한 발레단에서 주역, 솔리스트 하고 있죠. (교육전문가 유○○)

여기서 부지런하게 계속 과제를 던져주잖아요. 그게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오픈 클래스도 있고, 공연과 콩쿠르를 하면서 무대 경험도 쌓으면서 적절히 배치해서 아이가 지치지 않으면서도, 무대를 통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교육전문가 김○○)

4학년 레벨의 학생들에게는 작품을 정말 많이 시켜요. 스스로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정도로 클래식부터 재즈 느낌까지 아주 다양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맞춰요. 그렇게 1년 정도 배우면 기본적으로 포지션에 갖춰야 되는 것들,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음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이들에게 정리가 돼요. (교육전문가 심○○)

라. 환경영역

1) 학제별 교육환경에서 벗어난 수준별 교육 환경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개인의 수행 능력과 가진 장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학령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기존의 영재교육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별 수준에 따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고도의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학년이나 나이가 아니라 레벨로 나뉘어요. 신체 비율이 좋은데 발레를 늦게 시작해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과 교육 받을 수도 있고, 실력이 뛰어나서 언니, 오빠들이랑 수업을 받기도 하죠. 이런건 아이들에게 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교육전문가 김○○)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수준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용영재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수님은 아이들을 정말 깊게 관찰하시죠. 발레 말고도 이 아이의 특성,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 같아요. 일례로 어떤 아이에게 한 레벨 낮춰서 수업을 듣길 권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돋보이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지금은 대학교 입학해서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어요.

(교육전문가 심○○)

2) 올라갈수록 경쟁은 필수 조건, 배움과 경쟁을 동시에

경쟁심은 무용영재성의 구성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조주현, 2007)에서 무용영재성의 심리적 역량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심은 주요 타자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영재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동료와의 경쟁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지나친 수준에 이르면 동기를 저하시키거나 무용을 지속하는 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의의 경쟁은 무용영재성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심층면담 내용에 따르면 뛰어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인 환경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존중하며 경쟁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오디션을 열고 새로운 학생들과 기존의 학생들이 만나잖아요. 새로운 학생들이 여기에 오면 ‘이 정도까지 참고 해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분위기에 적응하고 인내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들이 모여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어떤 학생은 키가 작고 생일도 느려서 항상 그 아래 학년 입시를 봤어요. 근데 아래 학년이 테크니션이 정말 좋은 학년이었어요. 그 학생도 해당 클래스에 함께 있다 보니 같이 튼튼해지면서 점프와 회전이 좋아지고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교육전문가 유○○)

각 학생들은 서로 가진 장·단점이 달라요. 어떤 학생은 체형이 비교적 좋지 않는데 표현력이 정말 좋은 학생이 있고, 또 신체 비율이 좋은데, 근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같은 클래스에서 함께 수업하다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이 점점 보완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교육전문가 심○○)

동료와의 경쟁심은 지도자들보다 무용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많이 도출되었다.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는 초기에는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 집중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질투를 느끼게 되었지만 지도자의 가르침과 동료 무용수들을 통해 무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게 되면서 동료와의 경쟁심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장에 좋은 동력을 부여했다고 설명하였다.

신체적인 장점도 중요하지만, 무용수가 가진 예술 세계관이 더 큰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에요. 발레가 단순히 신체의 강점만을 중요시하는 예술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비학교(한국예술영재교육원 전신)에서의 시간들이 귀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중략) 클래식 발레가 좋고, 재능을 가진 동료들과 같이 경쟁하며 살았던 거죠. (영재출신예술가 김○○)

비슷한 나이에 발레 가장 잘하는 아이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무한히 주셨어요.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고 싶었어요. 당연히 나보다 더 잘하는 애한테 질투했고요. 더 적극적인 부모님을 둔 애도 질투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제 성장 자극제였더라고요. (영재출신예술가 박○○)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 서로의 장·단점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영재교육을 받기) 전에는 제가 제일 잘하고, 돋보였거든요.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발레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부상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걸 어린 나이에 알게 된 거죠. (영재출신예술가 정○○)

무용수로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동료 무용수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동료 무용수들은 아마 서로에게 영향을 줬을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자극체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워서 의지가 된 친구들이었죠. (영재출신예술가 이○○)

비슷한 나이의 무용수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저를 변화하게 했었고, 공연에 올라가는 선배들을 보면서도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어찌면 교육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같은 수업을 듣는 동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보고 배우면서 발레는 혼자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죠. (영재출신예술가 채○○)

무용을 잘하는 좋은 친구들과 형, 누나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들의 좋은 점은 배우려 하고, 안 좋은 점들은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주위 친구들의 춤을 보며 분석했어요. 같은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도 다른 춤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이 분석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 만큼 자연스레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재출신예술가 김○○)

3) 학생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예술은 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전공으로 선택한다는 편견이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예술은 공교육에서보다는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예술 분야에 교육 기회의 부족 또는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영재성이 발현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장되는 경우가 꽤 많아(강주희, 2014)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저는 중간에 (영재교육)수업을 포기했었어요. 예술중학교 생활과 여기(영재교육) 생활이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질문자: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또 예중 생활만 하다보니까 제가 받아먹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영재교육을 다시 받게 되었죠. (영재출신예술가 이○○)

‘돈 잡아먹는 귀신’. 예고 무용과 학생들이라면 다 들어봤을걸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작품비도 없고, 의상도 그냥 다 빌려줘요. 제가 예고에서 했으면 부모님 지원이 절실했을 텐데 (영재출신예술가 박○○)

저희는 학생들에게 작품비를 받지 않아요. 사실 이게 사교육과 부딪치는 지점이긴 한데.. 저희(교강사진)는 여기에 살다시피 하니까 학생들이랑 시간만 맞으면 와서 연습하라고 하고, 봐주고, 이런 게 일상이죠. (교육전문가 임○○)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경우 수업, 공연 등에 필요한 많은 부분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공연의 경우 의상, 분장 등, 해외 콩쿠르를 나가게 되면 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국가의 지원과 장학금 마련 등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재발굴과 지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보다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4) 교수진에게 영재교육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

예술영재교육 교수요원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강숙, 1991)으로 해야 한다. 상위수준 무용영재 교수진은 학생들은 정규교과과정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개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예술중·고등학교나 사교육에 비해 보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에게 처음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재능기부라고 생각해 달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작품비를 받고 (인터뷰어: 예술중·고등학교에서는 작품비가 정해져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 모두 포기하시고, 장시간 자차로 이동해서 가시고, 지도하시죠.

(교육전문가 조○○)

제가 중학교 남학생들도 가르쳤었는데, 그중에서 예술중학교에 안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애들이 예중을 병행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그때부터 당연히 가던 예중을 안가고 영재(교육원의) 교육만 받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할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니까 성장을 못하거든요. 부상도 많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안보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다른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개인 레슨처럼 제가 따로 불러서도 수업을 많이 해주고 사실 봉사활동이죠. 그래서 수업이 없으니까 개네 집에서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반 수업이 있을 때, ‘오늘 수업 있으니까 나와서 하고 가’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건 예고나 사교육에서는 어려운 부분..

(교육전문가 심○○)

교사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위수준 무용영재들 담당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사명감으로 들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라는 질문에 교·강사진은 한결같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다. 교수진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볼 때 느끼는 보람이 정책적 지원이나 보상이 부족해도 담당하는 이유였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이거든요. 거의 매일 4-5시간씩 만나니까 엄마 같은 느낌이 있고, 아이들에게 예의범절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인사하는 법, 어른을 대하는 법 예절도 가르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술 고등학교를 가도 그런 예절이 몸에 남는 학생이 많아요. 이런 거 중요해요.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바르게, 잘 성장했다 이런 거니까.

(교육전문가 김○○)

예술성과 표현성, 협업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너를 애 취급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치면 안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에는 선생님의 기대가 그렇게 높고, 선생님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주시니까 그만큼 자기가 충족하기 위해서 무용, 협업, 예술성 연습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상위수준 영재로 발현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심○○)

학생들에게 수업이 즐거우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 밤까지 수업을 다 받고 연습하면서도 교육원이 너무 오기 싫은 공간이 아니라 ‘정말 힘든데 가면 재밌어’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죠. 가끔 무례할 때는 정신 차리게 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왜 혼이 났어야 했는지 이해시켜요. 어떤 때는 제가 배워왔던 것,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일어섰는지처럼 제가 경험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좋은 무용수라고 다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 선생님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교육전문가 유○○)

교육의 콘텐츠를 분명하게 아는 교사, 최고의 퀄리티를 최다로 알고 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조금만 알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딜리버리해야해. 잘 가르쳐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학생이 잘 할 수 있게 티칭 방법을 알고 있고, 사랑으로 잘 할 수 있는 교사.

(교육전문가 김○○)

이처럼 교수진들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무용영재들을 대하고 있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발레 외의 인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세요.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죠. 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무용수들이 그렇듯 부상 경험도 듣고 또 그럴 때 무용수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프로 무대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재출신예술가 김○○)

자아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확립되는 10대 초반에 올바른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점이 저는 가장 감사해요. (영재출신예술가 이○○)

좋은 선생님 아래서 공부하고, 또 콩쿠르, 공연 등 무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저를 크게 성장시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선생님은 저에게 발레를 교육해주셨던 것을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셨어요. 흔들렸던 저에게 춤과 진로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영재출신예술가 채○○)

학생 개인의 재능은 필수 조건이지만, 그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끌어주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없으면 일정 수준 이상 나아가기 어렵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영재출신예술가 김○○)

제가 생각하는 아주 어릴 때 무용영재로 선발되어서 아주 좋은 (교육)환경을 만나야 되는 거 같아요. 학생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도와줄 선생님이 없으면 이 학생의 재능은 금방 사라지는 거 같더라고요. (영재출신예술가 한○○)

제가 교육받았던 환경이 참 좋았다는 걸 커갈수록 체감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도 계셨고, 따뜻한 선생님도 계셨어요. 제게 애정을 쏟아주신 분도 계셨고, 제 콩쿠르와 공연에 저희 엄마만큼 애써주셨죠. 외국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마스터 클래스로, 계속 한국에 계시면서 저희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영재출신예술가 권○○)

무용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역시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교수진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미 최고 수준에 오른 영재 출신 예술가들도 아직까지 교수진과 연락하며, 지도나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 및 시사점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에 대해 연구 참여 전문가들의 진술을 분석해 본 결과 4가지 주제에서 16개의 중심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중심의미

주제	중심의미	세부의미
신체영역	신체발란스	평균 이상의 신체조건들을 기반으로 조화를 이루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음
	부상방지	신체성장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연습, 과도한 테크닉 연습을 통제함
	발레분위기	외모를 가꾸는 것≠실력을 가꾸는 것 굵는 다이어트, 성형수술, 미용시술에 의지하지 않고 '발레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신체-심리영역)	이차성징, 섭식 등 신체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잘 통제함
수행영역	기본기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이 반복 수행
	이해력 (이해속도)	새로운 동작, 작품, 캐릭터 등을 빨리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함
	응용력	배운 내용, 동작을 적용시키는 것을 잘 함
	조화력	수행력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음 예술은 자기 안에서 조화/융합을 이루는 것
심리영역	열정	긴 연습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면서 무용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노는 것보다 연습하는 게 더 좋음
	과제집착 배움욕구	연습 시간보다 중요한 연습 목표 도달 수상, 진학, 진로는 배움으로 인해 따라오는 것

주제	중심의미	세부의미
환경영역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며, 체득하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 함
	인내심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참고 연습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함
	경쟁심	올라갈수록 경쟁은 필수 조건 선의의 경쟁으로 성장 동력을 키워주는 지도자들
	수준별 교육	학제별 교육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준별(레벨별)교육 환경
	국가지원	우수한 학생에게는 풍부한 지원 학생은 수업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수진 수준	수준 높은 교수진, 강사 역량을 끊임없이 계발 교수진에게 영재교육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
	교수진의 지지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춘 교수진 영재출신 예술가들은 가족 이상의 친밀감 가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국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영재교육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고, 예술영재교육도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 연구 측면에서는 예술영재성의 개념 및 개념에 입각한 판별, 판별과 연관 선상의 예술영재 교육과정 및 평가, 질 관리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고, 그만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시키고 예술영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해왔다.

우리나라는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나뉘 영재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재학급은 기초과정, 영재교육원은 심화·사사 과정의 역할을 하고, 영재학교는 그 중에서도 상위수준의 아이들을 선발하여 국가차원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나 예술분야에서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예술영재학교에서만 효과적인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자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예술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상위수준 예술 및 무용영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영재학교 설립이 논의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예술영재는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숙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장과 연구가 밀접하게 협력하는 연구, 특히 국내 예술영재교육의 산실로 꼽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지대한 관심에 비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각이 아닌 높은 수준의 무용영재성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받은 성취예술가들과 오랜 시간 이들을 교육해온 이들이 생각하는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고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은 무엇이며,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인식 및 요구도는 어떠한가, 상위수준 무용영재는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영재성 및 영재성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인식 및 요구도 분석을 위해 FGI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발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무용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재능이 질적으로 뛰어나며, 무용영재 구성요인 중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 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자’로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위수준 무용영재를 결정짓는 신체, 심리, 수행을 강조하지만,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좋거나 수행력(테크닉 등)이 좋다고 상위수준의 무용영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용영재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되, 한 가지 영역 이상에서 능력수준이 매우 우수하여 무용수준을 최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구성요인은 신체영역, 수행(performance)영역, 심리영역, 환경영역으로 협의되었다. 신체영역은 체격과 체력, 수행영역은 무용수행과 신체지능의 하위 영역을 가진다. 현장의 인식과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도출된 요인을 설문지화 하였고, 상위수준 무용영재에게 필요한 역량 순위와 가중치 도출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면담 구성 체계로 활용하였다.

신체영역은 탄아웃과 발의 형태, 신체비율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수행영역은 조화력, 해석력, 관객소통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심리영역에서는 동기, 열정, 과제집착, 집중, 몰입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환경 영역 중 지도자의 역량과 지지, 국가의 지원, 수준별 교육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에 대한 인식과 일반영재와 비교한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 정도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 도출된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의 구성 체계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층면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 전문가들의 진술을 분석해 본 결과 4가지 주제에서 16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먼저 신체영역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팔·다리 길이, 체형, 얼굴 크기 및 생김새, 관절 유연성 등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강조한 것에 비해 신체의 균형,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이차성징이나 사춘기 같은 급격한 신체변화를 극복하거나 부상으로 인한 신체 악역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높은 수행력과 예술성을 유지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력은 이미 상위수준 영재로 선발될 때부터 평균 이상의 수행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요인의 가중치를 가리기 보다는 수행력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기본기를 올바르게 익히고, 높은 수준이 되어도 기본기 훈련을 소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예술성을 완성하고, ‘무대 위와 무대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심리요인들은 서로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술영재 출신 예술가와 교육자들은 모두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 새로운 과제를 빠르게 이행하고 본인의 것으로 흡수하고 소화해 내는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과 해결 단계를 빠르게 인식하며, 자신의 사고에 의해 얻어진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인 메타인지(metacognition)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히 도드라진 요인은 인내심인데, 끊임없는 인내심은 예술가와 교육자 모두 강조하는 요인으로, 교육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습을 감당 할 수 있는 기본 의지, 무용수로서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당연하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내를 발휘해 연습시간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연습 목표에 도달해 내는 것이라는 공통적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내하고, 역량을 키우며 기다려서 스스로를 증명해 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최고 수준의 학생에게도 인내심 교육을 위해 주역이 아닌 배경 역할을 부여하거나, 더 어려운 과제, 더 어려운 작품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등의 상황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의 경우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무용수행 능력과 노력,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진술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의 물리적 지원과 사명과 애정을 가진 교수진의 정신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수업, 공연 등에 필요한 많은 부분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국가의 지원과 장학금 마련 등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진은 장기간 상위수준 무용영재들을 교육하며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 노하우를 갖추게 되며, 팀 티칭을 통해 각자의 우수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선생님들의 강점을 모두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무용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가족 이상의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교수진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은 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아직까지도 교수진에게 지도나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영재 출신 예술가들은 영재교육과정에서 체득한 수업들을 통해 발레단에서 여러 번 돋보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남녀 듀엣 파드되 같은 경우는 발레 선진국에서도 이만한 기량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반면 창작이나 저변교육은 부족해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기량을 갓출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 영재출신 예술가들과 교수진 모두 예술중·고등학교, 즉 정규 교육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무용영재교육을 받는 것에 우호적인 학교나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 학생에게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하는 방향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2. 제언

영재성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내 예술영재교육과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과 정책 연구기관에 의해 예술영재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예술영재성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화와 예술교육에 대한 관련 논의가 미처 수렴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그룹을 상위수준으로 규정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교수진들과 성취한 영재 출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소수이고, 영재성 구인은 가변적 속성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곧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의 전부라고 규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가변적인 영재성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를 통해 수렴하는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어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도출될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검토되는 새로운 방안 및 논의는 또 다른 새로운 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상위수준 무용영재성을 바탕으로 향후 상위수준 무용영재의 특성, 발현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 그동안 국내 무용영재교육 현장에서는 세계 수준의 무용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별 역량 개발과 예술성 발현에 중점을 두고 국제무대에서 수많은 성과를 내었다. 무용영재 연구자들 역시 예술영재교육 그리고 무용영재교육이라는 극소수의 분야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해 왔다. 교육 현장과 연구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무용영재교육 대상자들에게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왔다.

본 연구는 현장이 중심이 되는 연구로 교육자와 예술가들은 연구 현장을, 연구자들은 교육과 예술의 특수성 파악을 전제로 시작되었다. 일례로 FGI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원하는 동작을 적절하게 표현해 내는 어떤 능력’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알맞은 단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한 교육전문가가 ‘신체 지능(body intelligence)’을 제시하며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긴밀한 상호 협조 관계를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새로운 언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무용영재 연구와 교육 현장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예술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논의와 시도가 2010년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적 또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고무적이기도 하다가 정체되기도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관되게 영재교육이 지속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데 시대적 배경에 따라 평등성 및 형평성이 강조되었을 때는 영재교육이 주춤하기도 하고, 개인의 수월성이 강조되거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반복하였다. Gallagher는 이렇게 ‘형평성’과 ‘수월성’의 교육 원칙 사이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영재교육 현상을 ‘애증과 희망의 영재교육’이라고 하며 영재에 대한 관심의 순환적 특징을 비판(이정규, 2020; 윤수진, 2021)하였는데, 영재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예술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예술영재학교가 국가적 중요한 과제인 예술영재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참고하여 잠재력 높은 예술영재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영재학교의 설립과 운영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국내 저서

- 고흥환 (2008). **체육의 측정평가**.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복희 (1980). **현대무용테크닉**. 서울: 보진재출판사.
- 김재은 (1996). **예술과 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성**. 서울: 창지사.
- 김재춘(2012).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무용교육학회 (1996).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 문영 (1999). **무용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2006). **영재교육학원론**.
파주: 교육과학사.
-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김정희, 문은식, 박숙희, 박춘성, 성은현, 유경훈, 이희현,
최병연, 최지영, 한순미 (2009). **영재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성호 (2004).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 학지사.
- 한순미, 김선, 박숙희, 이경화, 성은현(2005). **창의성**. 서울: 학지사.
- 홍웅선(1979). **전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농원문화사.
- 홍후조(2011). **알기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황덕호, 고재곤(2011). **유아기·아동기 운동발달론**. 서울: 한국교연.

국내 논문

- 강미화 (2011). **한국무용 잔결음동작에 있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하지 협응 형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혜원 (2010). **무용표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권재술, 김범기 (1994). **초·중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측정도구의 개발**. **과학교육
논문집**, 4(1).

- 김경희, 곽창신 (2014). 이스라엘 영재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 김명희, 이성호, 문병량 (2001). 현대 무용수의 신체구성 및 체력요소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0(3).
- 김미숙, 전미란 (2006). 영재의 리더십 구성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학연구**, 44(1).
- 김미연 (2005). **발레무용수의 공연직전 스트레칭이 근력과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상미 (2014). **초등수학 영재학급의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서영 (2017).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내국인 여성들의 결혼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접근**. 다문화와 평화, 12(3), 57-85.
- 김성연 (2014). 미국 테네시 주 벤더빌트대학교 영재교육센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영재교육연구**, 24(2), 243-269.
- 김순근, 한기순 (2017). 과학영재, 나는 왜 의대에 진학하였나?. **영재와 영재교육**, 16(2), 23-47.
- 김승진, 이지원 (2021). 영재학교 재학생의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경험 및 이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연구**, 31(1), 53-72.
- 김언주 (2001). 영재의 판별과 선발. **영재교육연구**, 11(1), 1-19.
- 김영옥 (2015). **수학·과학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영재지도교사들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윤진 (2004). **무용성격의 본질에 관한 조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재호, 이윤경 (1997). 무용수의 기초체력 및 등속성 각근력 발달 특성 분석. **교과교육연구**, 1(1).
- 김재호, 이윤경 (1997). 무용수의 체력발달 특성 분석. **한국7체육학회지**, 36(4).
- 김재호, 차광석 (1998). 전공별 무용수의 신체구성 및 체력특성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7(4).
- 김진수, 박은숙 (1995). 무용전공학생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체육학논문집**, 23.
- 김진주 (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추구성향이 신체적자기지와 무용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화숙 (1996). 안무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6.

- 나경아, 박현정, 김리나 (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체구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24.
- 나경아, 박현정, 김리나 (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정렬분석. **한국예술연구**, 3.
- 나경아 (2016). 전공별 성격유형(MBTI)에 나타나는 심리기능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13.
- 나경아, 정윤정 (2014). 무용수 웰니스를 위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분석. **한국예술연구**, 10.
- 노현아, 최재혁 (2017). 학교와 과학영재교육원에서의 과학영재들의 대인관계역량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2).
- 류지춘, 이신동 (2014).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핵심역량 모형 개발 및 타당화. **영재와 영재교육**, 13(2).
- 맹희주 (2013). 융합영재교육의 발전 과제와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 **영재교육연구**, 23(6).
- 문영 (2008). 무용능력검사개발을 위한 무용수행능력의 요인구조 탐색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17.
- 문영 (1998). 무용동작의 심리학적 접근Ⅲ: 무용동작기술의 습득.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4.
- 문호영, 문성호 (2007).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2).
- 박성익 (2003). 홀리스틱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발전방향 탐색. **홀리스틱교육연구**, 7(1).
- 박순희 (2003). **예술중학교 무용교육과정 연구: 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진 (2010).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1990~2009년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박혜리 (2010). **영재관별 교사평정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박정화 (2015).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자기개념, 참여종목과 영재학급이 스포츠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4).
- 백연옥 (2001). 고등학생 발레 전공자의 근 기능 특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9.
- 서예원 (2005). 초등학교 무용 감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1).

- 서지연 (2015). **대학무용교육 현황을 통한 무용비평교육의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영채 (1991). **무용예술과 무용교육이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신경일 (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안병순 (2005). 즉흥무용의 수행과정에 관한 질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44(5).
- 안예진 (2007). **무용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오레지나 (2006). **무용창의성 본질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탐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레지나 (2006). 무용영재 판별을 위한 실기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
- 오레지나 (2008). 무용영재교육과정의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1).
- 오레지나 (2008). 무용영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모형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2).
- 이유성 (2010). **국내·외 발레영재교육 실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진, 조정아 (2006). 무용수행의 재능발달 요인: 수준별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 유진상, 심규철 (2006). 과학탐구대회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분석 연구. **국제과학영재학회지**, 1(2).
- 윤진아 (2018). **과학영재들이 영재수업에서 발현하는 영재성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진 (2005). 대학부설 연구소와 초등 교사들의 협력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사례 : ‘창의성 증진을 위한 초등 수학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8(2), 335-361.
- 이경진, 최진영 (2010).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력적 실천: 초등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8(2), 91-119.
- 이규은 (2004). **학교수준에서의 초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결정 요인 분석**. 초등교육연구, 17(2), 443-469.
- 이경화, 태진미 (2013). 영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아

- 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2(3).
- 이봉주, 고호경 (2009). **메타인지적 활동의 훈련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 분석 사례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2(3), 291-305.
- 이수영, 배정주 (2011). **자아계발과 진로교육을 통한 창의성 계발과 음악교육과의 관계 연구**. 한국예술연구, 3, 59-83.
- 이윤경, 조미혜 (2016). **초등무용교육과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3).
- 이정규(2020). **우리나라 영재교육 40년, 영재교육 패러다임의 도전과 전환**. 영재와 영재교육, 19(1), 5-24.
- 이정규, 박춘성(2009). **국가별 영재교육정책과 영재성에 대한 비교 연구: 일본 영재교육의 발전방향**.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2), 1-18.
- 이정필, 김장렬, 이경태 (2008). 발레가 여성 족부의 관절각 및 발목의 등속성 근력과 고유수용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포츠의학학회지**, 26(2).
- 이정화 (1990). **무용전공생의 체격 및 체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 김중복 (2013). 탐색기 과학영재를 위한 동료교수법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영재교육연구**, 23(2).
- 이지애, 박수경, 김영민 (2011). 과학영재들의 사고양식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과학 탐구능력간의 관계 분석. **영재교육연구**, 21(3).
- 이지현 (2008). **한국무용동작의 정서표현 특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진효, 이지연, 김현남 (2011).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및 평가기준 분석. **한국예술교육학회지**, 9(2).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10). 예술영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탐색. **영재교육연구**, 20(2).
- 장수빈 (2010). **이해중심 차별화 수업모형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수업 설계 및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선 (2016). **도덕적 위반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도덕 판단과 정서, 정서귀인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 전성수 (2013). **초등학생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전중희 (2013). 공과대학 대학원에서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양상 탐색. **교육심리연구**, 27(1).
- 정덕호, 박세훈, 이영환, 이정원, 이국행 (2009). 과학영재아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9(6), 639-652.
- 정문호 (2008). **과학영재교육원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개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정현철, 채유정, 류춘렬 (2012). 과학고 및 영재고 Research and Education (R&E)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영재교육연구**, 22(3).
- 정희자 (2004). 발레영재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1).
- 정희자 (2005). 발레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 발레학교의 현황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2).
- 정희자 (2007). 아동 무용공연 감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8(1).
- 주영주, 김동심 (2017). 영재교육에 있어 성격 5요인의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 예측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27(1).
- 조경아 (2009). **무용재능 지도자 평가의 구조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주연 (2007).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탐색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 주영주, 김동심 (2017). 영재교육에 있어 성격 5요인의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도 예측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27(1).
- 최미자 (1998).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신체구성과 체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 최예원 (2017). **무용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 최인범 (1996). 태권도 선수의 평형성과 체격 및 체력의 상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5(3).
- 최재원 (2008). 유아 춤 감상교육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회지**, 12(2).
- 최해리 (2001). 동작분석의 개념과 방법론-무용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학회지**, 3.
- 최호성 (2016). **한국 영재교육의 위기 현상 진단과 해결 방안**. **영재교육연구**, 26(3), 493-514.
- 최호성 (2017).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영재성, 영재 판별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 재개념화와 법 개정 방향의 시사점.** 영재교육연구, 27(3), 255-276.
- 태지훈 (2013).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융합인재교육(STEAM)의 방향 모색.**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 태진미 (2010). 영재를 위한 문화예술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순천향인문 과학논총**, 26.
- 태진미 (2013). 과학적 태도 수준 그룹에 따른 스토리텔링 기반 STEAM 교육의 효과 검증. **영재와 영재교육**, 12(1).
- 한기순 (2001). 영재교육과정의 모형과 방향. **사회교육과학연구**, 5(1).
- 한유화 (2012).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실탐구모델 개발.**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한혜리 (2005). 무용에서 이미지와 상상의 관계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 허정 (2005). 무용전공 여대생의 체격과 체지방률 및 체력의 비교 분석. **한국스포츠 리서치**, 16(4).
- 홍선미 (2008). Etude를 활용한 즉흥적 표현방법이 무용수의 Character 창조에 미치는 참여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홍수진 (2015). **과학과 예술의 융합지식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 측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황성우 (2008).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황인주 (2000). 무용연습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무용이론교육의 역할 및 방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8.
- 황규자 (1996). 체력에 의한 발레 연기력의 판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5(4).
- 황규자, 배진경 (1997). 무용교수도구로서의 심상연구. **학생생활연구**, 5.

국내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부 (2018).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강병직, 이현주 (2007).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교 설립 모형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미숙, 박효정, 유효현, 전미란, 박춘성, 손은영 (2006).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 영재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2004). 무용영재판별도구 개발연구. 미간행.
- 김선아 (2017).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성혜 (2016).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영춘 (2018). 영재교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탐색. 전북: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김주아 (2014). 초·중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아 (2016).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경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춘미 (2003). 예술영재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무용교재연구회 (2011). 무용 교수-학습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용린, 김일, 이지혜, 홍우림, 엄채운 (2009). 영재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진흥원.
- 서예원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서예원 (2014).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과학. 한국교육개발원.
- 서예원 (2014).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서예원 (2015).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 초·중학교 과학 시범적용. 한국교육개발원.
- 서예원, 이재분, 박지은 (2011).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건열 (2012). 예술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원영실 (2013). 예술영재성의 판별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 (2011). 예술영재학교 설립 및 학교교육과정 개발모형: 숙의과정과 반성적 고찰.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경진 (2012). **예술영재학교 교과교육과정 개발 연구: 일반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미경 (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연구 II**.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재분 (2013).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기관 평가 방안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효 (2010). **무용영재 평가범주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효 (2011).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효 (2012).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효 (2017). **무용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희현 (2016).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 초, 중학교 인문사회**.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김주아 (2016).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김주아 (2017).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 초, 중학교 수학**.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3). **영재성 발굴 및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숙 (2003).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하주현, 유경재, 한운영 (2011). **KEDI 창의적 인성검사 3종 개발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한수연(2006).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한수현 (2007). **예술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영재교육 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해외 저서

- Bloom,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e Books.
- Burning, R., Steen, N. (1991). *Sports nutrition for the 90's - The health professional's handbook*. Maryland: Aspen publishers. Inc.
- Csikszentmihalyi, M. (1996). *The Creative Personality*. NY: Psychology today.
- Davis, G. A. (1986). *Creativity is forever*. Dubuque: Kendall/Hunt.

- Hawkins, A. (1991) *Moving from within*. Chicago: A Cappella Books.
- Laban, R. (1963). *The mastery of movement*. London : MacDonald.
- Lamkins, A. (1977). *A model: Planning, designing and evaluating identification and instructional programs for gifted, talented and/or potentially gifted children*. N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Langer. (1957). *Philosophy in a new key : a study in the symbolism of reason, rite, and ar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Maker. (1982). *Teaching models in education of the gifted*. Rockville, Md: Aspen Systems Corp.
- McFee. (1994). *The concept of dance education*. London: Routledge.
- Norton, I., Olds, S. (1999). *Anthropometrica*. Sydney: UNSW Press.
- Roy, S., Irnin, R. (1983). *Sports medicine: Prevention, evaluation,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NJ: Prentice-Hall.
- Rimmer, James. (1994). *Fitness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special populations. Madison*. Wis.: WCB Brown & Benchmark Publishers.
- Sanders, R. (1982). *Health and fitness for wome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Treffinger, J., Isaksen, G., & Dorval, B. (1994). *Creative problem solving: An introduction*. Sarasota. FL: Center for Creative Learning.

해외 논문

- Burg, B. R. (1989). The Last American Puritan: The Life of Increase Mather. *The Historian*, 52(1).
- Cohen, L., McArdle, D. (1982). Cardiovascular responses to ballet exercise and VO 2 max of elite ballet dancer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 Groer et al. (1993). Physical Health of Today's School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5(1).

- Kushner, F., Reid, C., Penrose, T., & Grace, M. (1992). Relationship of turnout to hip adduction in professional ballet dancer.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8.
- Nicholas, A. (1975). Risk factors, Sports medicine and the orthopedic system: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3.
- Rachmel, S. (2007). The New Policy for Promoting Education for Outstanding and Gifted Students in Israel. *NATO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Series. E: Human and Societal Dynamics*, 16.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of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3).
- Rogers, C. R. (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ring. *Counseling Psychologist*, 5.
- Schantz, G., strand, O. (1984).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ballet.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16.
- Schultz, P. (1979). Day of the staic stretch. *The physician and Sportsmedicine*, 7(11).
- Sternberg, R. J., Lubart, T. I. (1991). Creating Creative Minds. *Phi Delta Kappan*, 72(8).
- Surburg, R. (1981). Neuromuscular facilitation techniques in sports medicine. *The Physician and Sports medicine*, 9.
- Torrance, E. P. (1963). The creative personality and the ideal pupil. *Teachers College Record*, 65.
- Turvey, M. T. (1990). Coordination. *American physiologist*, 45.
- Treffinger, J., Isaksen, G.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history, development, and implication for gifted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Gifted Child Quarterly*, 49(4).

웹사이트

강원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gwarts.gwe.hs.kr/main.do>

계원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kaywon.hs.kr/?main>

고양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goartsedu.e-wut.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lib.gen.go.kr/gecs/>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http://ncic.re.kr/mobile.index2.do>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law.go.kr>

대전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taejonarths.djsch.kr/main.do>

러시아 비카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 홈페이지. <http://vaganovaacademy.com/>

미국 발레학교(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홈페이지. <http://www.sab.org>

미국국립영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홈페이지. <http://www.nagc.org>

미국조지발란신발레학교(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홈페이지. <http://www.sab.org>

안양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anyangart.hs.kr/?main>

영국로알발레학교(The Royal Ballet School) 홈페이지. <https://www.royalballetschool.org.uk>

울산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ulsanart.hs.kr>

인천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inart.icehs.kr/main.do>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www.iecs.go.kr>

전주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fineart.hs.kr>

전주예술중학교 홈페이지. <https://ged.kedi.re.kr>

충남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cna.caehs.kr>

충북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cbart.hs.kr>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cnsec.or.kr>

캐나다국립발레학교(Canada's National Ballet School) 홈페이지. <http://www.nbs-enb.ca>

프랑스파리오페라발레학교(The Paris Opera Ballet school) 홈페이지.
<http://www.opera-balletschool.com>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ged.kedi.re.kr>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http://kniga.karts.ac.kr/>

상위수준 무용영재성 연구

발행인	조 주 현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ga.karts.ac.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 화	02-746-9537
인 쇄	(주) 계 문 사(02-725-5216)
I S B N	979-11-85119-90-8 93370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필자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